metro®
메트로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제2941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이혼녀드라마 안방서 인기

Sports p/23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



금도 주식처럼 사고판다 금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KRX금시장'이 정식 개장한 24일 부산 동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전시된 골드바를 살펴보고 있다. KRX금시장에선 순도가 99.99%인 1㎏짜리 금지금(골드바)이 단일 종목으로 매매되며 호가 단위는 1g당 10원이다. /뉴시스

"통신은 공기인데…" 網<망>관리 비상

6시간 장애 사태에 560만명이 생업 직격탄
분산배치로 발빠른 대응, 집중투자 급선무

통신 장애가 앞으로도 자주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업계가 지탄을 받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은 공기처럼 우리 실생활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54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 수가 5000만 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휴대전화가 없으면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많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전화뿐 아니라 음악·인터넷·게임·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하며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SK텔레콤의 가입자확인모듈(HLR)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약 6시간여 진행된 통신 장애로 인해 2600만 명의 가입자 중 560만 명의 가입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최근 1년간 발생한 통신 장애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과 SK텔레콤은 일주일 전인 13일에도 데이터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20여 분간 인터넷이 먹통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LG유플러스가 VoLTE 연동 및 착·발신 장비(교환기) 장애로 인해 음성통화가 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달리 100% LTE를 제공하기 때문에 3세대(3G) 우회망이 없어 통화 불능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잇따른 통신 장애와 관련,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망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피처폰이 이용되던 2세대(2G) 시대와 달리 4세대(LTE)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트래픽이 급증해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집중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통신 장애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이통 3사가 SK텔레콤의 이번 통신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망 관리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는지 자체적인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새로운 망을 운용하는 데 있어 관리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네트워크 전문가는 "과거 피처폰 시대에는 문자메시지나 장문 메시지, 기껏해야 저용량의 동영상을 관리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특히 800MHz 대역은 검증된 주파수로 관리도 용이했다"면서 "이번 SK텔레콤 불통 사태는 광대역 서비스를 위한 1.8GHz 망 운용이 미숙한 데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LG유플러스 역시 2.6GHz 대역을 할당받으며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통 3사 어느 누구도 이용해보지 않은 망인 만큼 검증되지 않아 우려된다"면서 "망 관리에 있어 분산 배치를 적절히 운영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도로망이 포화 상태인데 새로운 도로를 뚫거나 다른 도로와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갓길만 늘리는 방법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면서 "SK텔레콤도 임시방편으로 이 같은 사태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집중 투자로 새로운 망을 깔거나 HLR 장비의 숫자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임신 초기·해산 직전 2시간 단축근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9월 25일부터 하루 2시간 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신 여성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24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9월 25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 유산, 후기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해당 기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개미들 목소리 실종된 주총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 14일 116개사가 주주총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1일 국내 662개 기업이 일제히 주주총회를 연 '슈퍼 주총데이'가 지나갔다.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애썼지만 현실로 반영되진 못하는 상황이 번번이 이어졌다.

일부 기업의 주총 현장에선 자리가 부족해 소액주주들이 주총 현장을 방문하고도 주총이 진행되는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도 빚어졌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총에선 수십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한 주주는 "정말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직원들과 주주들 아니냐"며 "막상 회사 대표는 본인이 주인이라고 개미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총 현장에선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이익은 느는데 배당금은 한결같다며 배당금을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소액주주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려 해보지만 결국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무산되기 일쑤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주총에 대한 관심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 28일 497개 기업이 일제히 주총을 진행하는 마지막 슈퍼 주총데이를 남겨두고 있다. 과연 남은 주총데이에서 과연 개미들의 눈물을 닦아줄 기업은 있을까. 혁신을 외치지만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기업들의 현실이 씁쓸하다.

건강보험공단·주부교실 금연 캠페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24일 오전 11~12시 충무로역 일대에서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가 추진하는 흡연 폐해 홍보와 금연운동 확산을 지지하기 위해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서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공단의 담배소송 지지를 밝혔다. 또 중앙회는 세계의 담배 해악 이미지가 담긴 홍보 전단지, 물품과 함께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청소년과 여성 흡연의 위험성을 알렸다.

365일 화장품 할인이라니…



기자 수첩

정 혜 인 <생활레저부 기자>

화장품 로드숍의 할인 행사는 1년 365일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소비자가 할인 기간이 아닐 때는 지갑을 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가 출혈을 마다하지 않고 할인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할인 일수와 폭도 더 넓어져 신제품을 포함한 전 제품을 할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할인 행사 기간 외에 정가를 주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값을 더 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넘어선다. 할인 경쟁이 심화되면 업체들은 제품 원가 절감에 나서게 된다. 들어갈 성분의 함량 등이 낮아지니 제품 질도 떨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업체들은 화장품 개발에 대한 투자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체와 제품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소비는 감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뻔한 일이다.

이제 화장품 업계는 색다른 경쟁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물론 할인 행사가 업계 전반에 일반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수는 없겠지만 신제품 개발과 제품 개선 등의 다른 경쟁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

조금 더 다양하고 건전한 경쟁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소비자의 효용을 늘어나고 우리 화장품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세계 비핵화에 앞장설 것"

박 대통령 연설…한·중 정상 북핵 불용 합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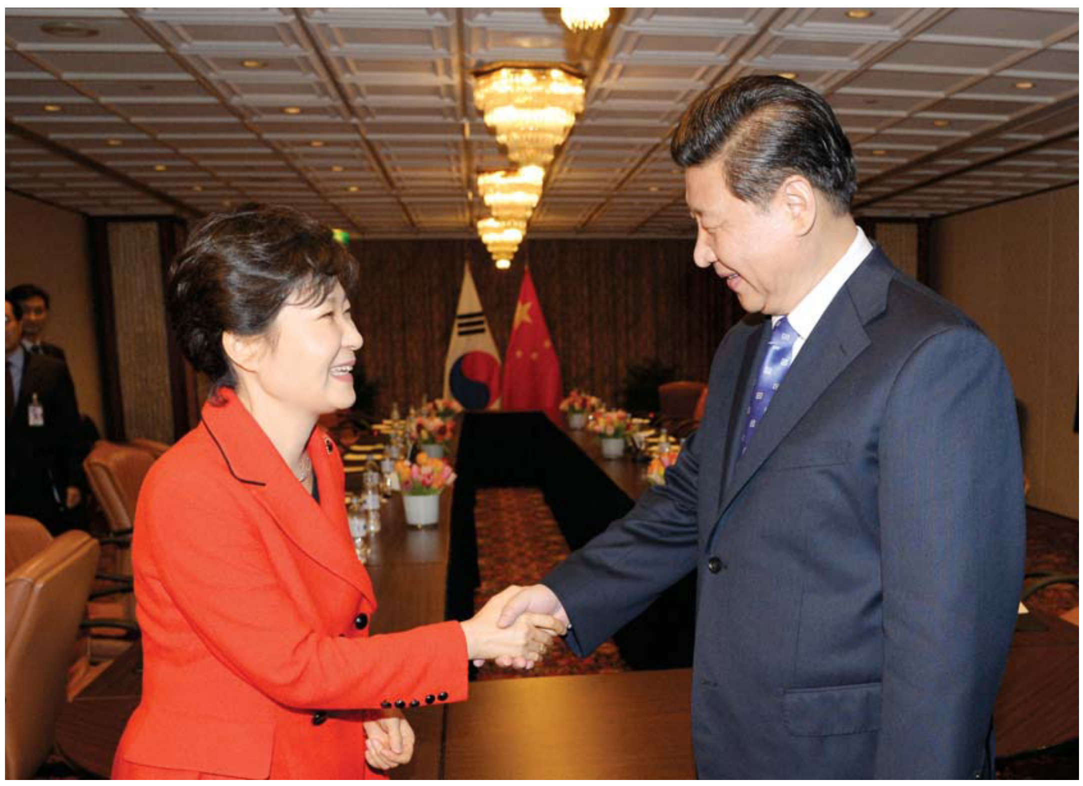
24일 청와대는 두 정상이 시 주석의 숙소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 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 중국은 북핵 보유를 확실히 반대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중·북 양국 간에는 핵 문제에 관해 이견이 있지만 현재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4일 진행된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한국은 세계 비핵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나의 '세계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만들어 힘을 모은다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악수하는 한·중 정상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헤이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5·24 조치 해제 검토 안해"

천안함 폭침 4주기 회견

정부는 천안함 폭침 4주기를 앞두고 대북 교류 협력 중단 조치인 5·24 조치와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해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의 해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는 현재 해제와 관련한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책임 있는 조치'의 범위에 대해 "일단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당연히 책임 있는 조치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밖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등 여러 가지 사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조치가 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마치 5·24 조치 해제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현직 판사 미국서 김황식 수행 논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직 판사가 수행원처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 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해당 판사는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 부설 연구소에서 통일정책 주제 강연을 할 때까지 함께 있었으며 김 전 총리의 가방을 잠시 들어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어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

국정원 과장 자살기도 '중태'

'간첩 증거 위조' 검찰 조사에 불만…'윗선' 규명 난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자살을 기도한 것은 지난 5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33분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모 중학교 앞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는 철제 냄비 위에 재만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권 과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해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권 과장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국정원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재직한 권 과장은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위조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9~21일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권 과장은 21일 3차 조사를 받던 중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오후 3시께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권 과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무력감 내지 굴욕감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오는 28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 전 '윗선'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안용기기자 kahn@metroseoul.co.kr



긴장감 감도는 서울아산병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 과장이 24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추모식을 앞두고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해군 장병이 '천안함 46용사 추모' 엽서를 매달고 있다. 2만여 통의 추모 엽서는 전국 초등학생과 장병이 직접 작성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혼외아들 뒷조사 의혹

4곳서 개인정보 집중조회

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팀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진료 기록을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최소 4곳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군(12) 모자의 개인정보가 집중 조회된 점으로 미뤄 뒷조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팀장은 지난해 6월 말 공단 내부 전산망을 통해 채군의 출산 전후인 2002~2003년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임씨의 진료 기록을 알아보려 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 중이다.

한편 채군의 학적부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최근 검찰에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이 아닌 또 다른 인사에게서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남교육지원청, 서울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등지에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비슷한 시기에 조회·유출된 점에 주목하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차원에서 뒷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민준기자

말레이시아 항공기 비상 착륙

인천공항 오려던 여객기 엔진 이상 홍콩에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수색이 3주째 접어든 가운데 24일 오전 6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 항공편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항공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6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 MH066편(에어버스 A330 기종)이 엔진 결함으로 홍콩에 오전 4시2분께(현지시간 오전 3시2분) 비상 착륙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전력을 생성하는 기체 내 엔진 제너레이터 2대가 고장 나 비상 착륙했다"며 "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71명의 승객들은 홍콩국제공항 내 대합실에 대기하며 불안에 떨었다.

승객 이모(33)씨는 "이륙 후 4시간 정도 지난 뒤 갑자기 기내 모든 조명이 꺼지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기장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며 "기장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비교적 기체는 요동 없이 비상 착륙했고, 기내에서 3시간가량 대기한 뒤 대합실로 이동했다. 승객들이 배가 고파도 근처에 먹을 것이라고는 커피숍 하나뿐이라 불편하다"며 "항공사 측은 아직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민준기자 mjkim@

해외문화체험 장학생 모집

서울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2014년도 해외문화체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발된 장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에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관내 고등학생(1학년)이면 지원 가능하다.

의료분쟁 무료상담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가 오는 28일 의료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가족 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전문가를 초청, '의료분쟁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월드컵공원 1000여종 생물 살아

쓰레기 매립지였던 서울 난지도가 월드컵공원으로 거듭난 지 11년 만에 오염물질이 절반으로 줄고, 멸종위기종인 왕은점표범나비, 맹꽁이 등이 다시 출현하는 등 1000여 종의 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컵공원 모니터링 결과,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 발생량이 2002년 8523t에서 3601t으로 57.8% 감소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cr) 총량도 2004년 164t에서 지난해 71t으로 56.7% 낮아졌다.

확인된 동식물종 수는 2000년 438종에서 지난해 1092종(식물 582종, 균류 84종, 동물 426종)으로 늘어났다.

야생 조류는 28과 50종이 관찰됐다. 큰말똥가리, 새매 등 멸종위기종 또는 천연기념물 6종과 제비, 청딱다구리 등 서울시 보호종 8종이 새롭게 등장했다.

/김민준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지휘자 토스카니니 출생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1867년 3월 25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태어났다. 파르마음악원에서 첼로와 작곡을 공부한 그는 19세에 첼로 연주자로 참가한 오페라 '아이다'에서 대리로 지휘해 대성공을 거두며 데뷔했다. 그후 이탈리아 각지에서 오페라를 지휘하며 명성을 떨친 토스카니니는 원보에 충실한 엄격한 지휘로 청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지휘를 하며 뉴욕 필하모니와 NBC방송국 관현악단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높이 평가된다.



떠나는 기러기떼 24일 강원 강릉시 경포호 주변의 논에서 기러기 떼가 북상 중 먹이 활동을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실험실 관리미흡 드러나

서울대 학내 실험실의 절반이 일일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환경안전원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학내 이공계 등의 실험실 1181곳의 안전실태 점검 결과와 안전 수칙 등을 담은 ‘2013 서울대 실험실 안전백서’를 24일 배포했다.

백서에 따르면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554곳(46.9%)은 일일 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험 시작 전 매일 한 차례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의 보관 상태와 보호장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36곳(3%)에서는 실험실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윤다혜기자

개 12마리에서 AI 항체 발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농가에서 기르던 개·돼지의 AI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충남 천안과 부여의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개 12마리에서 AI 바이러스 항체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가에서 키우던 개 1마리에서 AI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된 데 이어 24일 천안의 농장 1곳과 부여의 농장 1곳에서 키우던 개 12마리 등 총 13마리에서 AI 항체가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이 개들이 AI에 감염돼 폐사한 닭·오리의 사체를 먹고 AI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AI 바이러스는 동물의 호흡기로 들어가 폐의 기저부까지 침투해야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 당국은 정확한 AI 바이러스의 침투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AI에 감염된 개 한 마리를 해부해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녹사평역·용산구청역 병기

용산구청 부근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이 ‘녹사평(용산구청)역’으로 개정돼 28일부터 전면 사용된다.

서울 용산구는 2010년 4월 신청사를 건설해 원효로1가에서 이태원으로 이전했으나 민원인들이 구청의 위치를 잘 몰라 녹사평역이 아닌 이태원역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많아 병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의 병기 건의를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심의해 역명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녹사평역 외에도 봉화산역이 ‘봉화산(서울의료원)역’으로, 미아삼거리역이 ‘미아사거리역’으로, 수유역이 ‘수유(강북구청)역’으로 변경됐다. /윤다혜기자

“진주 운석 유성에서 떨어졌다”

미래부 공식 발표…국외 반출 방지에도 최선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견돼 화제가 된 운석(진주 운석)이 지난 9일 전국에서 목격된 유성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 운석으로 확인됐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 발표했다.

성분 분석 결과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이 운석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극지연구소 발표는 있었으나 ‘진주 운석’이 지난 9일 목격된 유성의 낙하운석임을 분석한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24일 한국천문연구원이 연세대 천문우주 연구진(변용익 교수팀)과 공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확보된 영상 관측 자료를 토대로 유성의 궤적을 1차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운석은 수도권 인근 상공에서 대기권으로 진입·남하했고, 1개의 화구가 경남 함양~산청 인근 상공에서 폭발·분리돼 진주지역 일원에 낙하했다. 또한 일반적인 운석 낙하 현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진주 일원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암석은 지난 9일 유성에 따른 낙하 운석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장현 천문연 우주감시센터장은 “이번 사안이 ‘유성체감시네트워크’ 등 유성·소행성 관측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돼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추락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전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서 발견된 ‘진주 운석’. /연합뉴스

한편 문화재청은 진주 운석의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해 공항·항만 및 국제우체국 등에 통관 검색 강화를 요청했으며,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학술적 활용 필요성 등도 고려해 대책반 논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진주 운석이 우주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인 만큼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보존·확보 및 대국민 전시·연구용 시료 배포 등의 학술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운석 관리체계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반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소행성 등 지구 접근 우주위험 물체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수립 중인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을 보강해 이번 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운석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도 기본계획에 담아 올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번 진주 운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이러한 관심이 우주 연구의 활성화와 우리 사회 전반의 우주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대책반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여성 안심귀가 맡겨주세요! 서울시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들이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발대식을 하고 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밤늦게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로, 다음달부터 500명이 시 전역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건널목 대기선 넘으면 음성 경고

교통약자 많은 지역 설치

경찰이 건널목 대기선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위험 상황을 사전 경고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은 ‘건널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치는 보행신호(적·녹색)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센서를 통해 대기선을 넘는 무단 횡단을 감지할 때 음성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2012년 3~12월 인천 용현초등학교와 경기도 안산의 성안초등학교 2곳 인근 건널목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용을 했다.

시스템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무단 횡단 비율은 성안초교에서는 14.4%에서 4.4%로, 용현초교에서는 6.1%에서 1.9%로 각각 낮아졌다.

경찰은 법규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초등학교 앞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지를 정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


EXPANSION SET
DIABLO®
영혼을 거두는 자™
2014.03.25
diablo3.com/reaper
© 2014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REAPER OF SOULS IS A TRADEMARK, AND DIABLO, BLIZZARD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OR OTHER COUNTRIES.
BLIZZARD® ENTERTAINMENT

metro HongKong



metro Brazil



Entorno do Museu Pel
ganha nova cara até ju

O entorno do Museu Pelé, que está sendo instalado nos antigos casarões do Valongo e deve ser inaugurado em abril, receberá nova cara antes da Copa do Mundo. Ontem, a Prefeitura homologou a contratação da empresa Inaplan Planejamento e Construções, que irá realizar a requalificação urbanística dos acessos ao futuro equipamento cultural e turístico. De acordo com o secretário adjunto de Infraestrutura e Edificações, Nilson Barreira, as obras serão iniciadas em abril e terão duração de três meses, sendo finalizadas até junho.

O titular da Pasta informou que toda a calçada do entorno do museu será refeita e ganhará mosaico português. "Será usado o padrão que temos implementado na cidade toda", comentou Barreiras. Também será feita ciclovia que irá ligar o espaço à rua Visconde de São Leopoldo.

As obras de revitalização do entorno … milhão aos co… "Vamos dar … cal, que é be… na cidade", … rio. METRO

Calçadas ao redor do terá novo visual | FRED CASAGRANDE/METRO

월드컵 맞아 펠레기념관 건립

월드컵을 맞이해 펠레 기념관이 건립된다. 상파울루 근교의 상투스시에 위치한 발롱구 저택을 개조해 만들어지고 있는 펠레 기념관은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3일 개장할 예정이며 상투스시는 기념관을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의지를 밝혔다. 상투스시는 공사를 담당할 이나플란사와 지난주 계약을 마쳤다. 이번 공사에는 총 110만 헤알(약 5억원)의 비용이 소모될 예정이며 모든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metro France



Les receleurs du Rembrandt
avaient « pris soin du tableau »

Fait divers

Retrouvé miraculeusement intact à Nice, quinze ans après son vol, *Le garçon à la bulle de savon* va prochainement retrouver sa place au musée de Draguignan.

« Ils ont visiblement pris soin du tableau qui est fragile » souffle, soulagée, la conservatrice du musée qui ne doute pas de l'authenticité de l'œuvre. Cette toile non signée, attribuée à Rembrandt – l'une des 13 du maître hollandais recherchées dans le monde – avait disparu dans la nature le 13 juillet 1999 pour ne réapparaître que lundi dernier.

Un renseignement lundi dernier

« Nous avons collecté un renseignement lundi dernier, qui indiquait une possible transaction mardi, simultanément dans un bâtiment et avec un véhicule pour interpeller deux individus» explique Stéphane Gauffeny, le directeur de l'Office central de lutte contre le trafic de biens culturels.

Les deux hommes « ont reconnu avoir recelé ce tableau dont ils n'ignoraient pas l'origine frauduleuse », précise le vice-procureur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Nice, Norbert Dornier. Les auteurs présumés ont été déférés hier au parquet de Nice, qui a ouvert une information judiciaire pour recel de vol commis avec effraction et association de malfaiteurs. Ils devraient être mis en examen par un juge d'instruction et probablement placés en détention. D'autres protagonistes de l'affaire sont

Cette toile avait disparu le 13 juillet 1999.

15년전 도난미술품 되찾아

15년 전 도난당한 렘브란트 판 레인의 작품 '비눗방울을 든 소년'이 남프랑스 드라기냥 미술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1999년 7월 13일 자취를 감춘 후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재보호소의 스테판 고프니 팀장은 "17일 니스의 한 호텔에서 미술품 장물 매매가 있을 것이란 첩보를 받았다. 우린 곧바로 잠복한 뒤 거래를 한 두 사람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재 두 용의자는 불법 침입을 통한 장물 은닉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고향 그리워 매일 웨딩드레스

중국 묘족여성 전통의상과 비슷해 평상복으로 입어



많은 여성들은 평생에 한 번 웨딩드레스를 입는다. 최근 한 중국 여성이 이 같은 '편견'을 깨고 매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활해 화제다.

화려한 드레스를 평상복으로 애용하는 주인공은 산둥성 지모시에 사는 샹쥔펀(项俊芬·사진 오른쪽). 그는 1년 내내 일을 할 때든 집에 있을 때든 항상 웨딩드레스 차림이다.

한 동네 주민은 "샹쥔펀은 항상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면서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주민은 "맞다. 예쁜 걸 좋아한다"고 맞장구쳤다.

샹쥔펀은 낙천적이고 효심이 깊은 여성이다.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농촌 여성이다. 그는 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됐을까.

샹쥔펀은 "그냥 옷이 예뻐서 좋아하는 것이다. 특히 흰색과 빨간색 드레스를 좋아한다"며 자신의 웨딩드레스 철학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웨딩드레스 사랑'에는 사연이 있다.

묘족인 그의 고향은 쓰촨성이다. 30년 전 그는 고향에서 유괴를 당해 산둥성 남부의 린이(臨沂)로 팔려왔다. 비인간적인 생활을 15년간 하다가 겨우 도망쳐 지모시에 오게 됐다. 공장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목적지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8세였다.

지모시에서 샹쥔펀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어느 날 우연히 웨딩드레스 매장 옆을 지나가던 그는 걸려있는 웨딩드레스가 묘족 전통 의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샹쥔펀은 그때부터 웨딩드레스를 입고 생활하기 시작했다. 웨딩드레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지금의 행복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도 하다.

그의 사진을 본 일부 네티즌은 "나이 많은 여성이 저런 옷을 입으니 안 어울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옷 입는 건 자유다" "인생은 짧다. 자신이 원하는 옷을 마음껏 입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 등의 글을 남기며 그를 응원했다.

한편 중국 소수 민족인 묘족은 구이저우성과 윈난성 등지에 흩어져 산다. 노래와 춤을 즐기는 이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과 장신구, 머리 스타일 등으로 유명하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В столице появился
«ускоритель обещани

모스크바 공원에 약속가속화 기계

박스에 바람 적어넣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곤차로프스키 공원에 약속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이색 '약속 가속화기'가 등장했다.

기계를 만든 바레니예 발명 그룹의 온톤 압스트락트는 "시민들이 작은 메모지에 자신의 약속이나 바람을 적은 뒤 이 박스에 넣으면 박스 내부에서 나오는 공기로 인해 메모지가 공중에서 돌게 된다"며 "이때 시민의 간절한 바람이 보태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기계의 작동 원리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한 약속은 '휴대전화 구입'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남을 미워하지 않겠다' 등 감정적인 것으로 나눠진다"고 덧붙였다.

압스트락트는 또한 "이 기계 속에서 약속 에너지는 가속화되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며 "어쩌면 약속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박스 속에 모인 약속들이 서로 충돌해 블랙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바레니예의 또 다른 발명가는 "이 프로젝트는 고차로프스키 공원의 미술감독이 공원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이색 발명품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며 "제안을 받았던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던 만큼 여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는 남성들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현재 가속화 박스는 주말에만 운영된다. 시민들은 자신의 약속을 적은 메모지를 박스에 넣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콘탁테'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약속 박스'에 열광하고 있다.

/율리야 두드키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세계 CEO 12% '여성'…2년새 2배로

전 세계 주요 기업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회계법률회사 그랜트손튼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 전 세계적으로 연 매출 규모가 1000만~10억달러(약 108억~1조800억원)인 중간 규모 회사에서 여성 CEO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2년의 5%, 지난해의 10%보다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고위 여성 임원의 비율은 24%로 지난해나 2009년, 2007년과 같았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임원 2명 중 1명 정도가 대형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인 여성 할당제는 2003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국명기자 kmlee@

'잘 생긴' 이미지 깨진 SKT 끙끙

통화장애 400억 배상액보다 큰 손실…적극 보상 통해 신뢰회복 노려

SK텔레콤이 통화 장애 사건으로 금전적 배상보다 이미지 회복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통화 장애 직접 피해 고객 560만 명과 간접 피해를 입은 2700만 명의 전체 가입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은 약 4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SK텔레콤의 통상 한 해 순이익의 1.4~1.8% 수준이다.

앞서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과 상관없이 10배 보상을 할 것"이라며 "다음달 요금에서 피해 금액만큼 감면 보상할 방침"이라고 사과했다. SK텔레콤은 25일부터 피해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상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이라 SK텔레콤 고객들의 이탈 현상은 드물 전망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피해 보상액은 월 기본요금을 2만7000~3만5000원으로 가정하면 361억~468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통화 장애가 SK텔레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시장점유율 50%대로 업계 1위를 수성하는 것도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업 고객을 보면 상황은 나빠진다. 사고가 발생한 20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통화 장애로 손님을 받지 못한 대리운전과 택시 업계 등이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SK텔레콤의 보상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명서를 냈다. SK텔레콤 가입자와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 피해는 완전히 외면하는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난관은 SK텔레콤의 이미지 추락이다

시장점유율 50%대로 줄곧 업계 1위를 지켜온 SK텔레콤은 '통화 품질'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일 통화 장애가 터지기 전날 SK텔레콤 직원 연수가 있었다"면서 "연수원에서도 '통화 품질' '고장 제로'를 누차 강조받았는데 다음날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음달 5일부터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경쟁사의 역공격도 매서울 전망이다.

SK텔레콤 측은 "임직원들이 패닉 상태다. 택배·콜택시·대리운전 기업에 SK텔레콤 영업사원을 파견해 피해 규모와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사라지는 증권사 올해 10개 달할듯

증권업계에 본격적인 연횡합종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10개 정도의 증권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애플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애플투자증권은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주주총회에서 자진 청산을 결정했다.

코스피200 옵션 주문 실수로 파산 위기에 몰린 한맥투자증권도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한맥투자증권은 미국계 헤지펀드와 이익금 반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해 자본 확충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증권은 대만 위안다증권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우리투자증권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NH농협금융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협상을 타결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금융 산하 NH농협증권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 업계 1위의 초대형 증권사로 올라서게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제네시스·i10·쏘울 '레드닷 디자인상' 동시 수상 현대·기아자동차는 '2014 레드닷 디자인상' 수송디자인 부문에서 신형 제네시스와 i10, 쏘울이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동대문디자인파크에 전시된 쏘울 차량의 모습. /현대·기아차 제공

'18년째 400달러' 면세한도 풀리나

정부 연내 인상 검토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 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 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00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유럽연합(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 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면세 한도가 낮아 초과 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 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주영기자 boa@

market index <24일>

항목	지수	변동
코스피	1945.55	(+10.61)
코스닥	545.60	(−1.21)
금리(국고채 3년)	2.89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76.70	(−3.30)

뉴스 & 뉴스



홍콩익스프레스 "선착순 무료"

오는 30일 서울~홍콩 노선 첫 비행을 시작하는 홍콩 익스프레스는 홍콩행 편도 구간의 항공운임을 26일 오후 11시59분까지 총 550매의 항공권을 무료로 선착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KB카드 김덕수 사장 취임

●KB국민카드는 24일 김덕수 전 부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KB국민카드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고객정보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환골탈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신임 사장은 국민은행 기획본부장, 성동지역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KB국민카드 부사장으로 재임했다. 이어 지난달 2일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 물러나고 나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백아란기자

은행 중기대출 비중 급감

●은행들의 기업대출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 사이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금액은 잔액 기준 646조4000억원이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2%(485조9000억원), 대기업은 24.8%(160조5000억원)다.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년 전만 해도 90%대에 달했다. /김민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감성수업' 함께 해요 24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재능기부 강사들이 어린이 감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한국P&G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139개 전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함께 만드는 내일'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금융권 사외이사 물갈이

4대 금융지주 33명 중 14명 교체… 교수 출신 대거 신임 눈길

주요 금융권의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이 대폭 바뀌는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우리금융·하나금융을 시작으로 신한금융(26일), KB금융(28일)이 주주총회를 열고 전체 사외이사 중 약 40%가량을 교체한다.

4대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33명 가운데 교체 대상은 14명에 달한다. KB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3명, 하나금융은 8명 중 5명, 우리금융은 6명 중 4명, 신한금융은 10명 중 2명이 바뀐다.

특히 교수 출신 인사들이 신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돼 눈길을 끈다. 이는 권력기관 출신의 금융권 사외이사 선정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학계에서 인물들을 찾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대부분이 현 경영진·금융 당국과 친분이 두텁거나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립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사외이사들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한 결과, 9명 중 5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윤리성·전문성·독립성 등 3가지 큰 항목과 1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한 결과 신임 사외이사 후보 3명을 비롯해 5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신임 사외이사 3명은 전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이나 금융당국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피싱·해킹사기 보험 나온다

금융사 우선 가입 유도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사기가 화두로 떠오르자 피싱·해킹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들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들어간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과 달리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감독 당국은 상품이 출시되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이번 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금융사들은 대부분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원기자



'3D 프린팅 체험관' 다음달 23일까지 운영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에 '3D 프린팅 체험관'이 문을 열어 3D 프린팅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다. 체험관은 4월 23일까지 일반인과 게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3D 프린팅 역사와 다양한 시연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금감원, 비리 루머 직원에 '명령 휴가제'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명령 휴가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 개혁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쇄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명령 휴가제는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회사 측에서 취급 서류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내부 감찰 과정에서 풍문이나 제보, 집중 점검이 필요한 직원, 위험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명령 휴가제는 현재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금융권을 감독하는 금감원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 권역별 검사와 감독 인력의 순환 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특정 금융사와 유착 관계를 없애고 4급 이상 직원의 재산 공개를 강화해 비리 여부를 사전에 진단키로 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소액투자 가능한 '금 현물시장' 열렸다

오전 10시~오후 3시 증권사서 주문 가능

지난해 관계 기관 공동으로 발표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돼온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이 개설돼 24일 오전 10시부터 정식 거래가 시작됐다.

금 현물시장 운영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등이 담당하며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금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회원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 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시장의 확보와 금 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금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 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 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개장 후 단일 호가 주문량 562g이 g당 4만6950원에 시가가 형성됐으며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등 순조로운 거래를 시작했다.

KRX금시장에서는 순도가 99.99%인 1kg짜리 골드바가 단일 종목으로 매매되며 호가 단위는 1g, 10원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문을 낼 수 있고 단일 호가 접수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2시부터 장 마감까지 각각 1시간씩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RX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 현물시장 개설은 우리나라 금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 산업의 발전과 금융투자 산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지목되고 있는 음성적 금 거래 시장의 오랜 관행을 변화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원기자 pjw89@

삼성생명 '책임준비금' 논란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적정 책임준비금 적립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삼성생명에 대해 책임준비금 관련 부당 행위 정황이 포착됐다며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검사역 4명을 보내 삼성생명이 판매한 일부 상품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이다.

금감원은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최저보증이율만큼의 금액을 삼성생명이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 측은 최저이율 보증수수료를 계약이 소멸됐을 때 책임준비금에서 빼느냐 여부에 대한 이견일 뿐, 규정상 책임준비금 부당 적립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원기자

국민세단 '4500억짜리 혁신' 기본기 자랑

현대차 LF쏘나타 공개… 내년 33만8000대 판매 기대



기본기 혁신에 중점을 둔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 신형 LF쏘나타(사진)가 공개됐다.

현대자동차는 24일 오전 10시 코엑스 1층 B2홀에서 신형 LF쏘나타 공식 론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지난 1985년 1세대 쏘나타 모델 출시 후 30여 년 만에 선보인 7세대 모델은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프리미엄 중형 세단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11년 프로젝트명 'LF'로 개발에 착수, 3년여의 기간 동안 총 4500억원을 투입해 완성시킨 결과물이다.

'기본기 혁신'에 중점을 둔 LF쏘나타는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반영한 정제된 디자인 ▲운전자의 감성 품질을 극대화한 인간공학적 설계 ▲차체 강성 강화 및 플랫폼 개선을 통한 동급 최고의 안전성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 구현 ▲실용 영역 중심의 동력 성능 개선 및 연비 향상 등을 구현했다.

외관 디자인은 ▲신규 헥사고날 그릴을 적용한 전면부 ▲한층 정제된 선과 조형을 통해 모던함을 강조한 측면부 ▲볼륨감을 잘 살린 리어 범퍼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극대화한 후면부로 고급 중형 세단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고객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화면을 계기판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시키고 각종 스위치는 공조, 주행 모드 등 서로 연관된 기능끼리 배치하는 등 인간공학적 설계를 적용했다.

쏘나타의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누우 2.0 CVVL, 가솔린 세타 2.4 GDi, 누우 2.0 LPi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쏘나타에 탑재된 누우 2.0 CVVL 엔진은 최고 출력 168마일(ps), 최대 토크 20.5kg·m의 동력 성능과 12.1kg/ℓ의 공인 연비로 경제성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국내 6만3000대, 해외 16만5000대 등 총 22만8000대를, 판매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국내 8만9000대, 해외 24만9000대 등 총 33만8000대의 신형 쏘나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LF쏘나타의 판매 가격은 2.0 CVVL 모델이 ▲스타일 2255만원 ▲스마트 2545만원 ▲프리미엄 2860만원, 2.4 모델은 ▲스타일 2395만원 ▲익스쿨루시브 2990만원(자동변속기 기준)이다.

신차 공개와 함께 현대차는 쏘나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쏘나타 모터쇼'를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단일 차종 브랜드 전시회인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는 약 1000평에 달하는 대형 전시장을 무료로 개방해 1세대부터 7세대에 이르는 쏘나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함은 물론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마련했다.

곽진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의 기본기에 충실한 신차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희기자 ssh814@metroseoul.co.kr



세계 3대 가스행사 '가스텍' 볼만!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스텍(Gastech Conference & Exhibition) 2014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가스 운송시설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가스텍은 세계가스총회(WGC), LNG 콘퍼런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가스 행사로 동북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청소년 25% 성인 9% '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청소년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 금단·내성 현상을 보이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상태를 말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만 10세 이상 54세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 1만55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의 11.8%가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청소년(만 10~19세)은 25.5%로 전년(18.4%) 대비 7.1%포인트 증가한 반면, 성인(만 20~54세)은 8.9%로 전년(9.1%)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이통2사 영업정지 수혜 'SKT보다 알뜰폰'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은 알뜰폰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로 이동통신 3사가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뒤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13일부터 사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막상 단독 영업 중인 SK텔레콤은 신규 가입자가 예상보다 늘지 않고 있다. 반면 알뜰폰 시장은 이동사 영업정지 이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독 영업에 들어간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신규 가입 실적은 일평균 1만3101건을 기록했다. 이는 사업정지 전 일평균 2만2799건 대비 42.5% 감소한 수준이다. 번호이동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5139명 수준에 불과하며, 영업정지 전 일평균 1만3423명 대비 61.7% 급감했다.

이처럼 단독 영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지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이동사 영업정지 기간 종료 이후 또다시 보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알뜰폰은 신규 가입 실적이 같은 기간 일평균 4139건을 기록하며, 영업정지 전 12일간 실적(일평균 2715건) 대비 52.4% 증가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사로부터 망을 빌려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은 통화 품질은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지만 요금이 저렴한 점이 각광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알뜰폰을 한 달 이상 사용한 가입자 3만 명의 한 달 평균 납부액은 1만6712원으로 이통 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 3만4399원보다 49%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일하는 50대’ 사상 최대

경제활동참가율 74% 넘어… 20대 백수비율 역대 최고

지난해 10월 중소 IT기업에서 은퇴한 강성민(58·가명)씨는 얼마 전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은퇴할 당시만 해도 1년간 쉬면서 ‘제2의 인생’을 차근차근 설계할 예정이었는데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연이은 취업 실패 끝에 얼마 전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50대 아버지는 일하고 20대 자식은 노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통계청의 2013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5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대의 경제활동인구는 571만3000명으로 이는 전체 50대 인구의 74.5%에 달한다. 50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에 비해 5.8%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20대 인구 628만5000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387만4000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61.6%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0년(64.9%)보다 3.3%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50대와 2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00년 3.8%에서 2013년 12.9%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지역별로도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컸다.

50대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제주도가 8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경상북도(80.9%), 충청남도(80.4%), 전라남도(78.7%), 충청북도(76.3%), 전라북도(76.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특별시는 72.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반면 일하는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청남도(66.1%)였다. 뒤이어 제주도(66%), 인천광역시(64%), 경기도(63.9%), 전라남도(63.9%), 서울특별시(63.4%) 등의 순이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두 발로 터치 ‘스마트짐보드’

SKT ‘브라보! 리스타트’ 첫 창업 성공사례 주목



SK텔레콤의 중장년층 창업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의 첫 상용화 사례가 나왔다.

SK텔레콤은 브라보! 리스타트 1기 김일겸씨가 대표로 있는 허브앤스포크와 협력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운동기구 ‘스마트짐보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짐보드는 스마트 기기에 있는 각종 콘텐츠를 발로 조작해 즐길 수 있게 한다. 게임이 끝나면 운동량과 소모 칼로리 등을 계산해 체계화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작사 허브앤스포크 대표 김일겸씨는 스마트짐보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자금과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 대표는 SK텔레콤 브라보! 리스타트의 초기 지원 자금을 통해 스마트짐보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고, 이후 외부 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다.

SK텔레콤은 스마트짐보드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안에 중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나서 올해 매출 목표 100억원을 기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명근 SK텔레콤 기업사업부문장은 “앞으로도 국내 다양한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가 ICT 생태계 발전은 물론 해당 사업의 성공 스토리 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라이나 실버암보험 80세도 가입



라이나생명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805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암보험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서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품 문의 전화: 080)951-8585 /박정원기자 pjw89@



욕실 문 열면 ‘겨울왕국’ 24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캐릭터를 활용한 욕실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4월 2일까지 ‘안나·엘사 아동 욕실화’를 3500원, ‘겨울왕국 유아겸용 변기커버’를 1만9000원, ‘겨울왕국 휴지통’을 88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kt렌탈 오토옥션’ 개장

국내 1위 렌터카 브랜드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한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 경매장 ‘kt렌탈 오토옥션’을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kt렌탈 오토옥션은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주 1회(매주 월요일)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해 자체적으로 직접 관리 및 점검한 최고 품질의 중고차를 유통하는 자동차 경매장이다. kt금호렌터카를 통해 직접 관리한 차량을 공급해 투명한 이력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강점이다.

면적 4만2371㎡ 규모에 1회당 1200대 경매가 가능한 전시 공간과 500여 석의 자동차 경매회장을 갖춰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 경매장 건물 내 kt 프리미엄 와이파이를 설치해 가입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선으로 실시간 차량 경매 및 검색 사이트에 접속해 경매 참여가 가능하다.

이용 안내 관련 자세한 내용은 kt렌탈 오토옥션 홈페이지(www.ktrentalautoauction.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태균기자

경제규제 연내 15% 없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각종 경제 규제를 15% 감축할 계획이다. 또 ‘조기에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개혁을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갖고, 산업부의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규제 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 조치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 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 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3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200여 개 전체 등록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도 오는 6월까지 일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로는 최초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유주영기자 boa@

효성 1억 달러 수주 알제리 변전소 건립

효성이 알제리에서 잇따른 대규모 초고압변전소 수주로,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EPC분야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효성은 최근 알제리 전력청으로부터 알제리 서북부 마르삿 지역에 1억 달러 규모의 400kV 변전소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일괄입찰방식(EPC)으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효성의 단일 변전소 수주로는 최대 금액으로, 지난 2010년 알제리 동북부 하시메사우드 지역에 1000억원 규모의 400kV 초고압변전소 4기 수주 성과를 잇는 대규모 수주다.

효성은 오는 2016년까지 변전소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변전소가 완공되면 알제리의 서북부 지역의 인근 거주 지역과 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균기자 ksgit@

역세권-중소형-대단지, '삼송2차 아이파크' 분양마감 코앞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세입자들이 삼송지구로 몰리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고양시 경계에 위치,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평뉴타운 인기 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4㎡ 전세가가 3억원이 넘는다. 작년 초 2억5000만원에서 불과 1년 사이 5000만~6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은평뉴타운 세입자 중 인근 삼송지구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특히 삼송지구를 대표하는 단지인 아이파크는 최근 아파트 계약률이 급격히 상승 중이다. '삼송2차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74㎡B 타입은 벌써 분양이 완료됐고, 다른 타입 역시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다. '삼송1차 아이파크'도 파격적인 분양가로 계약이 크게 늘면서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차와 2차, 착한 분양가vs역세권 대단지

삼송지구에서 분양 중인 A-8블록 '삼송1차 아이파크'와 A-20블록 '삼송2차 아이파크'는 각각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지형상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되는 삼송지구 아이파크는 남삼송과 북삼송의 대표 단지로 꼽힌다. 삼송1차 아이파크가 위치한 북삼송은 조용하면서도 교육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다. 반면 삼송2차 아이파크가 자리한 남삼송은 교통 환경과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삼송1차 아이파크는 전 가구가 중대형인 전용면적 100㎡와 116㎡로 구성되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3.3㎡당 980만~1050만원선의 저렴한 분양가로 최소 입주금은 1억4000만원부터다. 계약금 5%, 입주 기간은 6개월이다.

삼송2차 아이파크는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74㎡ 288가구와 84㎡ 788가구로 총 1066가구 규모다. 삼송지구 분양 아파트 가운데 중소형 면적을 공급하는 유일한 단지다.

사업지	삼송 1차 아이파크	삼송 2차 아이파크
세대수	610가구	1066가구
주택형	전용 100㎡, 116㎡	전용 74㎡, 84㎡
입주시기	즉시 입주가능	2015년 9월예정
특 징	초등학교, 도서관, 통일로IC 인접	삼송역 역세권 대단지
문의번호	1577-1551	1566-3022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 구간 삼송역 개발도 계획돼 있다. 또 차량을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통일로를 이용할 수 있고, 원흥~강매 간 도로도 올해 8월께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권 및 여의도로의 이동이 수월할 전망이다.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앞 창릉천, 솔개천이 위치한다. 또 단지 내 자녀와 산책할 수 있는 600m 길이의 산책로와 함께 단지 외곽으로 750m 산책로가 조성된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의 약 3배 규모에 달하는 오픈 스페이스가 제공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15번지(삼송2차 아이파크 현장)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광주·전남 '중흥S-클래스 센트럴' 2만명 방문 지난 21일 중흥건설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문을 연 '중흥S-클래스 센트럴' 모델하우스로 23일까지 3일간 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중흥건설 제공

동탄2신도시 생활권 신안인스빌 리베라 2차



신안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시범단지 생활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 리베라2차'를 분양한다. 전체 644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아파트가 들어설 A26블록은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시범단지 내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TX와 GTX 등의 교통 호재도 누릴 전망이다. 각각 2015, 2020년 개통 예정으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변으로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모바일, 부품연구소 등이 위치해 있고, 동탄 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벨트화 추진 계획에 따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진출해 있는 상태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만도 20만 명에 달해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는 평가다.

리베라CC, 치동천 근린공원, 시범단지 내 중앙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특히 실내 마감재와 가구를 E0등급의 친환경 마크를 획득한 고품질 제품으로 사용해 고품격 친환경 아파트를 실현했다.

단지 앞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계획돼 있어 단지 내 들어설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과 함께 아파트 안팎으로 명품 교육 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 리베라 2차 모델하우스는 3월 말 개관할 예정이며,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앞에 위치한다. 문의: 031)372-7090 /박선옥기자

'겹호재' 평택 아파트 살까

KTX 개통·대기업 투자 등 잇따라… 상반기 4000여가구 분양

올 상반기 경기도 평택시에서 건설사들의 분양 대전이 예고되고 있다. 대기업의 잇딴 투자, 광역 교통망의 개선, 토지 거래 허가구역 제외 등 다양한 호재로 평택에 집중된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라앉기 전 건설사들이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평택에서만 5개 단지, 4114가구가 분양된다.

<평택시 상반기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가구수(예정)	전용면적(㎡)	분양
청북지구 B9블록	청북 한양수자인	718	84	4월
안중송담지구 80-1블록	송담 힐스테이트	952	59~84	4월
소사벌지구 B-6블록	우미린 센트럴파크	870	84	4월
소사벌지구 B-7·8블록	평택 반도유보라 2차	630	74~85	6월
팽성읍 안정리 62번지	브라운스톤 평택	944	84~150	6월

*분양계획은 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료:각사>

◆첨단산업단지 메카 거듭…수요↑

당장 2012년 2월 수도권 KTX 신평택 역사를 확정한 평택시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둔 상태다. KTX가 개통이 되면 신평택역은 호남선과 경부선을 갈아타는 환승역 역할을 하게 되고, 수서에서 평택까지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2015년 말 준공 목표인 고덕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삼성전자가 입주하기로 한 고덕산업단지는 395만㎡ 규모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2.8배 크기다. 평택시는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1000억원의 지방세수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LG전자가 진위2산업단지 입주를 결정했다. 2016년 입주 예정으로 냉동공조설비, 조명 등 미래 신수종 사업과 고부가가치 전자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완전 이전한다. 군인·군무원·관련 기업체 직원 등 8만여 명의 평택 이주가 예상된다. 미군기지 이전을 계기로 제정된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에는 2018년까지 18조8000억원이 투입돼 환경 정비 및 교통·물류 사업이 이뤄진다.

◆상반기 4114가구 신규 분양

지난 2월 27.13㎢에 달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지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건설사들도 지금의 회복 분위기를 틈타 잇따라 신규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한양은 청북지구 B9블록에서 '평택 청북 한양수자인' 718가구를 내달 분양한다.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이다. 단지 바로 옆으로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 건설이 계획돼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4베이 설계가 적용된다.

같은 달 현대건설은 안중송담지구 80-1블록에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952가구 규모다. 평택항과 주변 공단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이 장점이다.

우미건설도 다음달 소사벌지구 B-6블록 '우미린 센트럴파크'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84㎡, 870가구로 이뤄졌고, 지구 중심에 위치해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반도건설은 B-7·8블록에서 6월 '평택 반도유보라 2차'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85㎡, 630가구 규모다.

이외 이수건설은 팽성읍 안정리에 '브라운스톤 평택'을 6월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45㎡, 944가구 규모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공원 20곳 조성비 90% 지원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정부가 공원 20곳을 선정해 조성 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20곳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시·도로부터 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이하인 곳이다.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를 국비로 지원한다. 다만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찰나의 봄도 연인의 미소도 안 놓칠게

더 가볍게 더 빠르게…출사족 마음대로 찍히는 카메라 추천





올해 벚꽃은 4월 1일부터 활짝 핀다고 한다. 카메라로 현지의 모습을 담는 이른바 '출사족'이 출동할 시기가 다가온 셈이다.

봄나들이를 맞아 야외에서 사진 촬영에 효과적이고 편리한 제품을 살펴본다. 일단 가장 중요한 가격은 60만원대로 잡았다. 이 가격대 제품은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지니고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구입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후지필름의 미러리스 'X-A1'이다.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닮은 모습이 일단 매력적이다. 1630만 화소 APS-C사이즈 CMOS 센서를 탑재해 고화질과 뛰어난 색감을 구현하며 EXR 프로세서2를 장착해 초기 구동 속도 0.5초, 셔터 타임랙 0.05초를 실현해 빨리 촬영할 수 있다.

연사 속도는 초당 5.6매로 빨라져 최대 30매까지 저장할 수 있다. 다양한 멀티 앵글로 촬영할 수도 있고 3대2 비율의 3인치 액정을 실어 일반적인 16대9 비율의 화면보다 27% 더 넓게 보며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EOS M2'는 DSLR 부동의 1위 캐논이 선보인 미러리스 카메라다.

이 제품은 오토포커스(AF)에 일가견이 있는 캐논의 제품답게 '하이브리드 CMOS AF II'를 새롭게 장착해 빠르고 정확한 AF를 제공한다.

다중초점 모드에서 최대 약 2.3배 빠른 AF 속도를 지원해 보다 쾌적한 촬영 환경을 지원하며 AF 측거점이 화면의 약 80%까지 확대돼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도 정확히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동영상 촬영 시에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초점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능이 뛰어난 DSLR은 휴대성이 떨어져 여성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러리스 같은 DSLR도 없지는 않다.

2416만의 유효 화소를 갖춘 니콘의 'D3300'은 무게가 400g대에 불과하다. DX 포맷 CMOS 이미지 센서, 광학 로 패스 필터 제거, 화상 처리 엔진 'EXPEED 4', ISO 감도 100~1만2800(확장 시 최대 2만5600까지 설정 가능) 지원 등 상대적으로 뛰어난 스펙을 자랑한다.

특히 입문자를 위해 액정 모니터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촬영하는 '가이드 모드'를 탑재해 몇 번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촬영 환경이나 피사체에 적합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했다.

캐논의 미니 DSLR 'EOS 100D'는 이 장르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1800만 화소의 신형 CMOS 센서와 캐논 5세대 이미징 프로세서 'DIGIC 5'를 갖췄음에도 무게는 370g밖에 되지 않는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갤럭시탭 프로, 아이패드 눌렀다

미 컨슈머리포트 평가 태블릿PC 부문 1위에



전 세계 태블릿 시장 석권을 노리는 삼성전자가 강력한 신무기를 장착했다. 이달 초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프로 시리즈가 애플의 아이패드를 제치고 미국 소비자 잡지 평가에서 최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컨슈머리포트 인터넷판은 갤럭시탭 프로 10.1과 갤럭시탭 프로 8.4가 각각 9~12인치 태블릿 PC(와이파이 전용) 부문과 7~8인치 태블릿 PC(와이파이 전용)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갤럭시탭 프로 10.1은 휴대성·화질·다기능성·성능 등 4개 항목에서 '탁월(Excellent)' 평가를, 편의성 항목에서는 '매우 우수(Very Good)' 평가를 받으며 역대 태블릿 중 처음 90점을 획득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프로 12.2 제품의 32GB 모델과 64GB 모델도 87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애플의 아이패드 에어는 휴대성, 편의성, 화질, 성능 4개 항목에서 '탁월' 평가를 받았으나 다기능성에서 '우수(Good)' 평가를 받는 데 그쳐 종합 점수 85점으로 4위에 그쳤다. 7~8인치 부문에서도 갤럭시탭 프로 8.4가 휴대성·화질·다기능성·성능 등 4개 항목에서 '탁월' 평가를 받으며 종합 점수 87점을 얻어 애플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83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기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따지는 '다기능성'에서 갤탭 프로 시리즈가 아이패드보다 우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플레이엔씨 회원 '프야매' 바로 즐긴다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로 야구 게임 시장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는 '프로야구 매니저(프야매)'가 든든한 후원군을 등에 업었다.

엔트리브소프트는 27일부터 채널링 서비스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게임 포털 '플레이엔씨'(kr.plaync.com)에서도 '프야매'(bm.gametree.co.kr)를 즐길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플레이엔씨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 없이 프야매를 이용할 수 있다.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 '블레이드 & 소울(블소)' 등 엔씨소프트 4대 MMORPG와 프야매를 같이 플레이하면 푸짐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남소유, 유란, 진서연 등 블소의 인기 여자 캐릭터가 부매니저로 등장해 게임에서 진행을 돕고 조언을 주는 색다른 재미도 맛볼 수 있다.

김동석 엔트리브소프트 라이브 사업실장은 "프야매는 20~30대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게임으로 플레이엔씨의 이용자 연령대와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채널링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엔씨소프트 게임들과의 다양한 공동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엔트리브소프트는 22일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에서 '프로야구 매니저' 비전 발표회를 열고 '스타 영입 시스템'과 '커리어 하이 카드' 등 신규 콘텐츠를 공개했다. 특히 주요 시스템 중 하나였던 '선수 계약 시스템'은 폐지해 이용자가 스트레스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국명기자

꼼꼼 IT 리뷰 - 소니 워크맨 NWZ-ZX1

800곡 원음 그대로 꽂히는 감동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요즘 FLAC와 같은 원음을 그대로 저장한 파일을 애용한다. MP3의 용량이 1MB 수준이라면 FLAC은 10MB를 훌쩍 넘는다.

그래서 혹자는 원음 파일을 스튜디오 사운드라고도 한다.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음악을 압축이나 손실 없이 그대로 담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고품질 음원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들 음원을 MP3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유행할 정도로 FLAC와 같은 파일은 아직까지는 마니아들에게나 익숙한 즐길거리였다.

이에 소니는 '워크맨' 브랜드를 적용한 전용 플레이어 NWZ-ZX1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통화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외모도 그렇지만 터치 작동 방식, 와이파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앱 설치와 구동, 사진·동영상 감상 등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들어 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인을 배려한 디자인이라고 해석하면 될 듯하다.

제품의 핵심인 사운드를 표현하는 능력은 찬사를 들을 만하다. MP3플레이어와 비교해 들어보니 차이를 알 수 있었다. MP3플레이어가 뭔가 정돈된 느낌의 다소 탁한 소리라면 이 기기는 날것의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풀 디지털 앰프 기술, 최대 192kHz/24bit의 고해상도 음원 재생 기능을 바탕으로 ▲일반 오디오 음원을 고해상도 음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DSEETM HX 기술 ▲소리의 균형을 맞춰주는 클리어 오디오 플러스 ▲파워풀한 베이스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클리어 베이스 등 최신 음향 기술을 집어넣은 덕이다.

여기에 800곡 이상의 고해상도 음원을 저장할 수 있는 128GB 대용량 메모리와 완충 시 약 32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한 강력한 배터리는 덤이다.

아쉽게도 이 기기를 제대로 누리려면 돈이 꽤 든다. 일단 단말기 가격이 79만9000원이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해주는 보완 제품인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고급형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소니가 이 제품을 사는 사람에게는 프리미엄 헤드폰 'MDR-1RMK2(실버)'를 공짜로 준다는 점이다. /박성훈기자

비수술 디스크 치료



지긋지긋한 허리, 목 통증, 디스크 질환 비수술 치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고주파 수핵감압술"은 강남초이스병원과 상의하세요!

10분 정도의 고주파 또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치료하세요!

허리. 목 디스크는 고주파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 받으세요

강남초이스병원에서는 2010년 개원 이래 4년 동안 비수술 치료 중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시술의 특징은 국소마취 하에서 시술 영상을 보며 병변 부위에 고주파을 위치시킨 후 10여분 정도의 간단한 시술로 진행된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이 감압, 수축되어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호전 된다. 또한 신경성형술은 1mm 정도의 카테터를 디스크 질환의 병변부위 근처에 삽입한 다음 약물을 이용하여 눌린 신경을 풀어주면서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하는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은 직경이 작은 여러 카테터을 같이 사용하고 그 동안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디스크 질환의 증상에 따라 신경성형술과 적절하게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치료 가능하다. 단 증상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수술이 두렵거나 고혈압,당뇨,노인 환자도 시술 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강남초이스병원과 상의하세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국소마취하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넣어 아픈 부위를 직접 들여다 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쏘아 염증부위를 제거하면서 신경근 유착까지 없애고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다. 이 부분 마취 시술은 직접 내시경으로 병변의 염증을 볼 수 있고 작은 병변까지 레이저로 제거하고 더불어 약물을 넣어 신경 염증과 붓기를 가라 앉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으로 인해 수술이 힘든 환자들도 시술 받을 수 있다.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흉터도 거의 안 남고 시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시술 후 퇴원 가능하며 일반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 고려대상
1. 추간판 파열되지 않은 디스크 환자
2. MRI상 퇴행성 변화가 적은 환자
3.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로 효과가 적은 환자
4. 전신 마취 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
5. 고령자나 만성 성인질병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

시술후 염증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가 없거나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남초이스병원 척추 치료의 특징

강남초이스병원은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로 척추 관절 질환의 재발을 막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다양한 치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경막외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또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하며, 이후 재발 방지 및 원인 치료을 위해 의사의 진단 후 환자의 질환별, 나이별, 증상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도수치료,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나아가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척추 치료를 체계화시킴으로서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비수술적인 치료 후 맞춤형 재활, 도수, 운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은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홍대 지하철 입구에 강남초이스정형외과 의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와 체형클리닉(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척추 및 관절 도수치료클리닉, 관절 연골과 인대 재활치료클리닉, 체외 충격파 및 운동치료클리닉을 개설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를 첨단 장비로 합리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의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	
〈척 추〉	〈관 절〉
1.경막외 신경성형술	1. FIMS 요법
2.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수술	2.체외충격파
3.고주파 수핵감압술	3.프롤로테라피
4.프롤로테라피	4.도수치료
5.근육 자극치료	5.운동치료
6.체외충격파 치료법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 고려 대상
1. 허리, 목 디스크
2. 허리,목 척추관 협착증
3. 척추 수술 후 재발된 통증
4. 전신 마취 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
5. 고령자나 만성 성인질병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

시술후 염증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 가능성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204-중-53499호

강남초이스병원

서울대점 02)875-2200
홍 대 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백화점도 편의점도 '베이비부머가 왕'

5060세대 겨냥 기획전·문화강좌 늘고 시니어스태프가 눈높이 서비스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유통업계에 큰손으로 부상했다.

5060세대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은 꼭 사고, 이왕 사는 것은 오래 쓸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사려는 소비 패턴을 보여 한 번 살 때 큰 금액을 지불한다. '나이 먹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젊은 취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이들 5060세대인 중장년층이 '큰손 고객'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구매 금액이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5%포인트 증가한 수치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해당 연령층 고객 1인당 지출 금액도 20~40대 고객에 비해 30% 이상 많았다.

롯데백화점은 5060세대 여성을 겨냥한 어덜트 컨템포러리를 신설했다. 또 장년층을 위한 쿠폰북을 별도로 만들어 5060세대 고객몰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1월 1일부터 이번달 19일까지 5060세대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38%를 차지해 2011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포인트 증가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구매 금액은 매년 평균 5%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평균 구매 금액(객단가)도 20대보다 25%, 30대보다 6%가량 많았다. 이 백화점은 가정의 달 5월에 이들을 겨냥한 패션·스포츠·건강식품 등을 묶어 액티브 시니어 페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년층의 매출 비중이 꾸준히 30% 이상을 유지하며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에 시니어 건강댄스·시니어 테라피요가·가락장구와 경기민요 등 5060세대를 겨냥한 문화센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도 50대 이상 고객들의 발길이 늘었다.

GS25의 조사 결과 중장년층의 매출 구성비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하게 20% 이상을 차지하며 객단가에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1000원 이상 높았다.

세븐일레븐은 올해 14일까지 50대 이상 연령층의 매출 구성비가 21%를 차지했으며 1인당 구매 금액도 3930원으로 20대보다 11% 높았다.

CU는 5060세대의 좌식 문화를 반영해 좌식형 테이블을 늘리는 추세다. 또 시니어스태프제를 통해 5060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염색약·보청기·건강보조식품 판매 방송을 늘렸으며 보험 상품의 경우 60대 고객들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체리 콕콕·베리향 은은…

식음료업계 신제품 출시 붐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새봄을 맞아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상큼한 원재료가 가득 담긴 식음료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매달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선보이는 배스킨라빈스는 봄을 맞아 상큼한 체리가 들어간 신제품 'Mr.체리초코'와 'Ms.체리치즈'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선보였다.

Mr.체리초코는 감미로운 초콜릿 컵케이크 아이스크림에 달콤함을 더해주는 초콜릿 케이크와 초콜릿 퍼지 리본이 들어있어 진한 초콜릿 맛을 배가시켰으며 상큼한 레드체리로 달콤하고 새콤한 맛까지 더했다.

Ms.체리치즈는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아이스크림에 상큼하게 씹히는 레드 체리와 새콤한 체리 리본을 곁들여 크림치즈와 상큼한 과일의 맛이 따뜻한 봄과 특히 어울리는 제품이다.

향긋한 유채꿀을 담은 제품도 눈길을 끈다. 오설록은 제주의 만발한 유채꽃을 모티브로 한 '봄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 이 메뉴는 제주 섬의 봄 풍경을 모티브로, 오설록의 녹차와 봄을 알리는 노란빛 제주 유채꿀을 담았다. /정영일기자



페레로로쉐 '마키아벨리'전 후원 이벤트 이탈리아 초콜릿 페레로로쉐는 24일 오전 국립도서관에서 한·이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린 '르네상스형 인간, 마키아벨리'전 후원과 함께 페레로로쉐 초콜릿 샘플링 행사를 벌였다. /페레로로쉐 제공

중식 일인자의 '광저우 만찬'

그랜드 힐튼 서울 '여향' 다음달 16일 하루만 진행



그랜드 힐튼 서울 중식당 여향은 오는 4월 16일 단 하루 동안 '아름다운 고향 광저우(광동)에서의 만찬 2014'를 진행한다. 이번 만찬은 2011년 세계 요리대회에서 금상을 거머쥔 장립화 셰프의 지도로 진행된다.

화교 출신인 장 셰프는 중식의 느끼하고 강한 맛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는 기술로 정평이 나 있으며 국내 정통 중식 요리의 일인자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번 만찬은 동충하초 불도장·해삼 가리비 죽순·깐풍 전복·광저우식 쇠안심 스테이크·칠리 바닷가재·식사와 디저트 순서로 구성돼 있다. 그중 장 셰프가 고른 이번 만찬의 추천 메뉴는 불도장이다. '스님이 그 맛을 잊지 못해 벽을 뛰어 넘었다'는 뜻을 가진 불도장은 장 셰프가 중국의 레시피를 그대로 들여온 스페셜 메뉴로 지난해와 다르게 동충하초를 첨가한 보양식으로 준비된다. 또 코스 메뉴와 함께 질레산 화이트와인 '샤르도네 리저브 산타 리타'와 레드와인 '메달야 레알 카버네 쇼비뇽'이 무제한 제공된다.

'아름다운 고향 광동에서의 만찬 2014'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18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및 예약: 02)2287-8787 /정혜인기자 hijung0404@

호텔들 29일 '지구촌 전등끄기' 동참

콘래드·인터컨티넨탈… 간판 등 조명 소등하기로



오는 29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최하는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인 '어스 아워(Earth Hour) 2014'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다. 이에 국내 명품 호텔들도 이 행사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먼저 콘래드 서울은 옥외 간판 조명을 소등하고 건물 외관과 실내 점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스 아워 칵테일 리셉션, 캔들릿 디너 등 고객 및 임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를 운영하는 파르나스 호텔 역시 한 시간 동안 외부 간판 및 외벽 조명, 계단을 제외한 공공장소의 전등을 모두 소등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의 전등 밝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행사에 동참하는 W 서울 워커힐은 보이지 않는 곳의 전력 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와 교육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며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전 세계 하얏트 글로벌 기업 책임 프로그램인 '하얏트 트라이브(Hyatt Thrive)'의 일환으로 행사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에너지 절약 및 지구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행사 당일 한 시간 동안 외부 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로비 라운지 조명도 최소화할 계획이며 더 플라자 역시 오는 29일 소등 행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최소한의 리넨류만 세탁하는 그린카드 운영 등을 통해 환경 보전 활동을 실시한다.

또 2007년부터 매년 행사에 동참해온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호텔 간판, 가로등 등 외부 조명을 소등하고 호텔 임직원 모두에게 사무실 및 가정 내 불 끄기 실천을 독려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트렌치코트 입은 귀요미

유아동 봄 옷차림 이렇게



꽃샘추위도 한풀 꺾이고 봄이 찾아왔다. 각 유아동복 업체들은 봄 시즌에 맞춰 산뜻한 디자인의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올봄 유아복은 활동성을 고려한 편안한 디자인에 봄꽃을 모티브로 한 레드·오렌지·핑크·노랑 등의 비비드한 색상과 화려한 패턴으로 봄의 화사함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가방앤컴퍼니 관계자는 "봄에는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이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스판 소재 바지와 레깅스, 품이 넉넉한 A라인 원피스 등이 좋다"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대비할 수 있는 점퍼나 카디건·트렌치코트를 레이어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봄나들이를 할 때는 활동성을 고려한 캐주얼 스타일이 제격이다. 활동량이 많은 만큼 움직이기에 편하면서도 통풍이나 흡습 등의 기능성도 가진 소재의 의상을 선택한다. 여기에 최근 가오리·야상·케이프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바람막이 점퍼를 레이어드해 환절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카디건 역시 어떤 스타일과도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다.

가족 모임·외식 등의 자리에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옷차림이 좋다. 클래식한 프레피 스타일을 입히되 롤업팬츠나 패턴이 들어간 스웨터 등을 입히면 단정하면서도 아이다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너무 무겁지 않은 자리라면 포인트 액세서리를 이용해 발랄한 느낌을 더한다. 여기에 트렌치코트를 입히면 차분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날씨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어 환절기 외출용으로 좋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신고벗기 편한 슬립온 떴다

올봄 '대세 신발' 시선집중 캔버스·송치·가죽 등 소재 속굽 있는 제품 '각선미 업'



매해 봄이면 플랫슈즈·옥스퍼드화 등의 신발이 인기지만 최근 편안한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인 스니커즈가 트렌드로 떠오른다. 이미 거리에는 부츠보다 단순한 디자인의 스니커즈가 눈에 띄게 늘었다. 손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을 뜻하는 슬립온(slip-on) 슈즈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올봄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작년 겨울 시즌부터 해외 파파라치 컷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등장한 슬립온 슈즈는 이번 시즌엔 다양한 소재와 패턴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벼운 느낌의 캔버스 소재부터 부드러운 송치·이그조틱한 아나콘다 가죽·화려한 플라워 패턴까지 개성을 살린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화려한 슬립온 슈즈는 모노톤의 심플한 모던룩이나 니트와 데님 팬츠를 매치한 캐주얼룩·세미 정장룩까지 어디에나 쉽게 매치가 가능하며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은 겨우내 신었던 부츠나 워커 대신 발목이 드러나는 신발을 신기 때문에 슬립온 슈즈 중에서도 각선미를 강조하며 안정된 착화감을 지닌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여성들은 몰드창과 히든 굽 1㎝가 내장돼 있는 레이첼콕스의 슬립온을 쇼트팬츠나 미니스커트·미니원피스 등과 함께 매치하면 다리 라인이 길게 노출되면서 몸매가 예뻐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슬립온 컬러와 하의 컬러를 맞추면 더욱 긴 각선미를 뽐낼 수 있다.

레이첼콕스 관계자는 "이번 시즌 트렌드인 슬립온은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한 스타일에 매치가 가능해 실용적인 아이템이다"며 "슬립온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 또한 뛰어나다"고 말했다.

컨버스형 스니커즈도 봄철 데일리룩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신발이다. 컨버스 스니커즈는 발목을 조이지 않아 신고 벗기가 용이하다. 맨발로 신어도 통풍이 원활해 봄·여름 시즌 부담스럽지 않게 신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스니커즈는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편이라 심플한 디자인으로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앞으로도 꾸준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맷돌 방식 원액기…아이스크림도 뚝딱 이마트는 러빙홈 자체브랜드(PL) 원액기를 유사 상품 대비 30~40% 가량 저렴한 19만9000원에 판매한다. 아이스크림까지 제조할 수 있는 이 원액기는 녹즙기와 달리 맷돌 방식으로 눌러 짜줘 영양소 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목 넘김이 부드러운 주스를 만들어내는 2세대형 주서기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마트 제공

30대 초반 기저귀 최다 구매

연령·시간별 달라지는 모바일쇼핑 품목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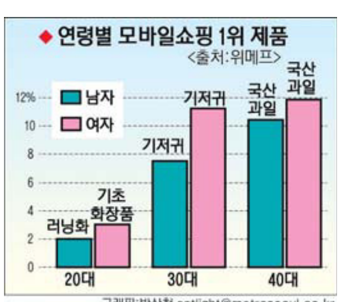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령별·시간대별로 어떤 상품을 모바일로 많이 주문할까?

20대는 옷이나 화장품 등 자신을 꾸미는 상품을, 30대는 기저귀 등 아기를 위한 용품을 구매한다. 40대는 모바일에서 과일 등 가족들의 먹거리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별로 보면 남자 30대 초반의 경우 회사에 있는 낮 시간에 운동화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올라서는 등 잠깐의 '일탈'을 즐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두 달간 성별·연령별·시간별 쇼핑 인기 상품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20~24살)의 남자들은 하루 종일 운동화와 의류·패션 제품이 1~3위를 차지했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화장품과 운동화·샴푸·향수 등이 1~3위를 차지했다.

20대 후반 여성들의 경우 여전히 화장품이 1위를 유지했지만 아침과 낮 시간대에는 기저귀가 인기 상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패밀리레스토랑도 순위권에 올라왔다.

30대 초반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기저귀가 인기 상품 1위를 휩쓸었다. /정영일기자



그래픽:박상철 estlight@metroseoul.co.kr

돈가스·떡갈비도 서프라이즈 가격

강강술래 파격할인 행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물가 안정을 위한 파격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100% 국내산 돼지 등심을 통째로 넣은 '통등심 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자연산 치즈를 넣은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강강술래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검은깨를 넣은 '흑임자 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 쇠고기육포(50g×6봉·2만5200원)도 30% 할인가로 내놓았다.

이와 함께 100% 한우로 우려낸 가정간편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 2만2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1등급 토종 한우 업진살로 구성된 '황사세트'(삼겹살 500g+업진살 400g)도 4만3500원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강강술래 신림점은 오는 28일까지 한우 스페셜·모둠구이·양념등심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김학철기자



때론 섬뜩하게~ 때론 다정하게~ 180° 유턴

배우 장현성(44)의 인상은 서늘한 눈빛에서 비롯된다. 범인이 아니지만 범인일 것 같은 그의 눈빛은 시청자 뇌리에 각인되기 충분하다. 그러나 치아를 보이며 활짝 웃으면 한없이 순박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의 모습은 또 다른 반전이다. 현재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에서 경호실장이자 저격범인 함봉수 역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준우·준서 아빠로 상반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그를 만났다.



'쓰리데이즈'



'슈퍼맨이 돌아왔다'

'쓰리데이즈'선 오싹한 경호실장… 눈빛연기 일품
'슈퍼맨이 돌아왔다'선 다정한 아빠… '예능감' 폭발
예능 러브콜보다 라디오 DJ 출연 요청 더 많아요
YG 이적… 3대 기획사 가면 힙합앨범 낸다고 했는데

◆'쓰리데이즈' 경호실장 함봉수

장현성이 연기한 함봉수는 '쓰리데이즈' 5회(19일)에서 경호관 한태경(박유천)의 총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는 "회상신에서 나올 것 같다. 회상이라는 것도 새로운 과거가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는 시간이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지난해 가을 '쓰리데이즈' 출연을 결정하고 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경호 훈련은 물론 무인 느낌이 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관은 제압보다는 대통령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해요. 관찰해보니 언제나 날이 서 있고 몸과 두뇌가 명석합니다.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궁리했습니다."

그는 "'쓰리데이즈' 속 인물들은 조국을 위해 움직인다. 각자에게 명분이 있고 그들이 가진 다양한 감정의 결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함봉수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다. 단지 현재의 조국을 위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내란음모죄까지 행하며 중범죄를 일으킨 것"이라며 비극적인 결말을 알면서도 폭주처럼 달려가는 함봉수를 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장현성의 이미지는 '섬뜩'에 가깝다. '쓰리데이즈'에서도 함봉수를 피해 침대 밑에 숨은 이차영(소이현)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작품을 공포물로 착각하게 했다.

"섬뜩한 이미지를 콤플렉스로 느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는 교회 오빠의 느낌이 나 일정 수의 팬도 있었죠. 코믹부터 온화한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연기해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짓밟히다 보면 악에 받치게 되고, 악당 같은 사람일지라도 집에 가면 자상한 아빠일 수 있잖아요. 복합적인 모습을 같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 YG패밀리의 새 식구

장현성은 지난 1월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배우 일을 하면서 매니저를 바꾼 적이 없어요. 그 매니저가 YG와 일을 하게 돼 같이 오게 됐죠. 예전에 농담 삼아 3대 기획사에 들어가면 6개월 안에 힙합 앨범 낼 거라고 다짐했는데 아직 빅뱅도 못 봤어요."

이어 "YG에 들어오기 전엔 뮤지션들이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기획사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매니저부터 경비원, 식당 아주머니까지 회사 분위기 자체가 건강했다. 조직은 화제가 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기는 게 중요하지만 분배가 돼야 한다. 그 부분에서 YG는 활력이 넘쳤다"고 새 회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 '슈퍼맨 아빠' 인간 장현성

포털사이트에 '장현'을 치면 유명 아이돌보다 '장현성'이 먼저 뜬다. 그를 대세로 만든 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라는 예능 프로그램이고 "인간 장현성에게 여유를 준 계기"라고 그는 말한다.

"'슈퍼맨' 섭외는 전화로 왔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구경거리가 될까봐 혹은 반대로 아이들이 TV에 나온다고 으스댈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떤 경우라도 감지되면 그만둔다고 제작진에게 말했어요. 또 배우 장현성의 몰입도가 떨어지면 그만둔다고 했죠. 다행히 양쪽 다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큰아들 준우는 훈훈한 외모로 이미 차세대 배우로 점쳐지고 있다.

"배우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나만 열심히 하면 오래할 수도 있는 직업이죠. 그런데 경쟁률이 치열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준우가 그냥 공무원이나 평범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죽어도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예능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덕에 출연 제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외로 예능보다는 라디오 DJ 섭외가 가끔 들어온다고 한다. 라디오 부스 안에 있는 장현성의 모습도 기대해본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박은지

손승연 새 싱글 들고 컴백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가 '렛 잇 고' 커버 영상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가수 손승연(사진)이 미국 버클리 음대를 휴학하고 국내에 컴백한다.

손승연은 다음달 1일 새 싱글 '살만해졌어'를 발표하며 이에 앞서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보라색으로 변신한 헤어스타일의 최근 사진을 올려 근황을 전했다. '살만해졌어'는 지난해 7월 내놓은 첫 싱글 '미친게 아니라구요'와 12월 발표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잇는 이별 3부작 중 마지막 노래다.

이 곡은 연인과 헤어진 후 한때 물 한 모금도 못 마실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잊고 꽤 살 만해졌다고 전하는 담담하지만 가슴을 저미게 하는 발라드다.

손승연은 1월 미국 버클리 음대를 휴학하고 귀국했으며 지난달 '렛 잇 고'를 연습실에서 마이크도 없이 앉아서 부른 커버 버전으로 유튜브 조회 수 300만 건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음악 팬들의 호평을 받았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 할리우드리포터 등의 매체들은 물론 미국의 국민 MC 라이언 시크레스트 홈페이지에서도 손승연을 다루는 등 가창력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순호기자 suno@

케냐 유소년 축구단 김장훈 구단주 맡아



'기부천사' 김장훈(사진)이 아프리카 희망 전도사로 나선다.

24일 아프리카 케냐로 출국한 김장훈은 굿네이버스, 아프리카의 축구 영웅 임흥세 감독과 함께 12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희망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단을 선발하고 구단주와 후원을 맡는다.

소속사 관계자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5~6시간 정도 소요되는 메구아라 지역과 고로고초 지역의 희망학교들을 찾아 유소년 축구대표단을 선발할 예정이다"며 "향후 K-리그 및 2020년 월드컵 케냐 축구대표팀 발탁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김장훈은 희망학교 어린이들의 음악 선생님을 자처해 케냐의 민속음악과 한국의 아리랑을 연습, 현지 공연 및 마을 잔치를 펼칠 계획이다.

김장훈은 '아프리카는 축구가 최선의 희망'이라는 얘기를 듣고 향후 한국 유소년 축구단과 교류에 힘써 한국이 진정한 아프리카의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훈은 케냐 일정을 마친 후 귀국해 '상하이 독도아트쇼'에 전념할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이번엔 남자의 사랑 노래했죠"

조성모 '변화의 바람' 발표… "살아있네 평가 받고파"

4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한 '발라드의 황태자' 조성모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24일 새 앨범 '변화의 바람'을 발표한 그는 이날 청담동 재즈 클럽 원스인어블루문에서 열린 음악감상회 겸 간담회에서 "'노력했네, 살아있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새 앨범은 녹음, 뮤직비디오, 재킷 촬영 등 한 번에 끝낸 게 없을 정도로 시간, 노력, 돈을 들였다"면서 "난 비주얼 가수도 아니고 퍼포먼스형 가수도 아니니 가슴을 열고 음악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타이틀곡은 남자들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발라드 '유나야'다. 공개 전 프로스펙스가 피겨 요정 김연아를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 '오마주 연아' 영상에 삽입됐던 곡이다. 이번주에는 조성모가 김연아에게 몰래카메라로 이 노래를 직접 불러주는 영상이 공개된다.

타이틀곡만 발라드일 뿐 조성모는 이번 앨범에서 자신과 음악적 색깔이 다른 현진영을 프로듀서로 참여시켜 큰 변화를 꾀했다. 수록곡 중 셔플 리듬이 가미된 블루스 기반의 곡 '나의 여신', 펑키한 리듬의 애시드재즈인 '나를 봐', R&B 성향의 '추억의 책장' 등을 선보인다.

변화를 강조한 이번 앨범에 대해 "오랜 시간 같은 패턴의 음악을 해오다 보니 나름 정체도 있어 새롭고 즐거운 도전을 해보게 됐다"면서 "그동안 여자의 감정을 대변한 여린 감성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번엔 남자가 사랑하면서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엔 1~2년에 한 번 소속사와 약속된 시간에 쫓기며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담았다. 이런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앨범을 만들다 보니 4년이 걸렸다"고 앨범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24일 새 앨범 '변화의 바람' 음악감상회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성모. /연합뉴스



싸이도 탐낸 미발표곡 공개

신승훈 5월 극장식 공연서

가수 신승훈(사진)이 5월 열리는 극장식 공연에서 미발표곡을 공개한다.

신승훈은 5월 6~11일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더 신승훈 쇼-리미티드 에디션Ⅱ'를 진행한다. 회당 1000명씩 총 5회 동안 모두 5000명을 위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입장권 예매 시작부터 예매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는 물론 콘서트 부문 주간 차트 1위를 유지하는 등 폭발적인 관객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승훈은 미공개 신곡을 처음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기로 했다. 신승훈은 "자연의 푸르름이 연상되는 아일랜드풍의 청량한 곡"이라며 "어쿠스틱 구성으로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사실 이 곡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스페셜 앨범에 수록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절감이 맞지 않아 미뤄뒀던 곡이다.

이 관계자는 "신승훈의 개인 컴퓨터 하드에 들어있다는 500여 곡의 미발표곡들은 한때 싸이도 탐냈던 곡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사실 소속사 관계자들도 아직 완성곡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엔지니어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진 곡"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양성운기자 ysw@

송윤아 "악성댓글 더는 못참아"

결혼 관련 루머 악플러 고소… "정상적 사회활동 어려워"



배우 송윤아(사진)가 설경구와의 결혼을 둘러싼 인터넷상 허위 블로그나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송윤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송윤아의 법률 위임을 받아 허위의 블로그 내지 악성 댓글에 대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은 "송윤아가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2009년 결혼 당시에는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과성 행사로 생각해서 차차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악성 댓글이나 욕설의 정도가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으로 점점 진화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나아가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이 퍼부어지는 등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라고 법적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위가 명백하거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을 담은 블로그 혹은 기사 댓글들을 중심으로 증거 채집이 완료된 전원에 대해 1차로 3월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블로그나 카페 글 내지 댓글에 대해서도 캡처 등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결혼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송윤아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탁진현기자



"'트로트엑스' 오디션 프로 아니라더니"

첫 방송은 '보이스 코리아' 판박이

방송 전부터 트로트판 '슈퍼스타K'로 화제를 모았던 엠넷 '트로트엑스'(사진)가 지난 21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앞서 제작진은 "'트로트엑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종합 버라이어티쇼"라고 거듭 밝혀왔으나 첫 방송은 엠넷 '보이스 코리아'와 판박이였다. 일반인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 노래를 부르면 두 명씩 짝을 이룬 심사위원들이 선택해 팀을 결정짓는 부분까지 똑같았다.

이에 엠넷 관계자는 "'슈퍼스타K' '보이스코리아' '쇼미더머니' 등을 연출한 제작진의 노하우가 녹아든 것"이라며 "일반인 참가자의 사연과 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오디션 방식을 재미있게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회 등장했던 일반인 참가자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예선을 통과한 실력자들로 각 트로듀서(트로트+프로듀서)들과 팀을 이루기 위해 오디션 방식의 무대에 오른 것이다.

'트로트엑스'는 트로트 대표 태진아·설운도·박현빈·홍진영이 다른 장르 음악 대표 박명수·아이비·유세윤·뮤지와 각각 팀을 꾸려 일반인 참가자와 함께 짝을 이뤄 색다른 트로트를 선보이는 종합 버라이어티쇼로 오는 28일 방송되는 2회까지 일반인 참가자의 오디션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안방극장 '돌싱녀' 돌풍

'세결여' '응급남녀' 등 인기

최근 안방극장에 이혼녀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 MBC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 그리고 tvN 금토극 '응급남녀'가 그 주인공이다.

이 중 '앙큼한 돌싱녀'와 '응급남녀'는 여자 주인공이 이혼했다는 설정부터 헤어진 부부가 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 일한다는 점, 그곳에 여주인공을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점까지 시놉시스만 본다면 같은 드라마로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다.




같은 시기 돌싱녀 역할로 주목받고 있는 MBC '앙큼한 돌싱녀'의 이민정(왼쪽)과 tvN '응급남녀'의 송지효.

'앙큼한 돌싱녀'의 나애라(이민정)는 고시생 차정우(주상욱)와 결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혼한다. 이후 차정우는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성공하게 되고 나애라는 전남편 회사의 계약직원으로 들어가 그를 다시 유혹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을 되돌리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기 바쁘다. 또 정우 회사의 최대주주인 국기봉 회장 아들 국승현(서강준)이 낙하산 직원으로 들어와 애라를 짝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응급남녀'는 6년 전 이혼한 남녀가 응급실 인턴으로 다시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시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어린 부부 오진희(송지효)와 오창민(최진혁)은 각각 영양사와 제약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끝내 헤어지고 만다.

오진희는 시어머니에게 무시받은 기억에 이혼 후 의대에 진학, 늦깍이 인턴 생활을 시작한다. 창민 역시 부모님의 바람대로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과거에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응급실 치프 국천수가 있다.

두 드라마 모두 현실의 높은 이혼율을 반영하고 있지만 새 출발이 아닌 전남편을 택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올해도 리얼리티 프로그램 열풍 계속된다

SBS가 '일단 띄워' '도시의 법칙'을 선보이는 가운데 올해도 리얼리티 프로그램 열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SBS 'SNS원정대-일단 띄워'(이하 '일단 띄워')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기획한 방송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즐기는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SNS만 이용해 어디까지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또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까지 만날 수 있을지 등 엉뚱한 상상력에서 비롯한 이 물음을 SNS 유저들의 도움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선보인다.





배우 김민준·오상진, 아이돌 진운(2AM)·규리(카라)를 비롯해 SNS와 리얼 예능에 첫 도전한 오만석·서현진까지 6명의 출연진이 SNS를 이용해 15박17일을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각자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SNS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원정대원들의 브라질 실시간 여행기는 '일단 띄워'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된다.

SBS '정글의 법칙'을 잇는 두 번째 법칙 시리즈인 '도시의 법칙 인 뉴욕'(이하 '도시의 법칙')은 낯선 대도시에 무일푼으로 떨어진 스타들의 생존기를 그리는 리얼예능 방송으로 다음 달 첫 촬영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장소는 미국 뉴욕이며 약 한 달간 실제 뉴욕 시민처럼 살게 되는 '도시의 법칙' 출연자들은 세간에 알려진 여행 버라이어티가 아닌 생활 리얼리티 예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도시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을 만든 이지원 PD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정글의 법칙 인 캐리비언'으로 인연을 맺은 김성수를 비롯해 이천희·정경호·백진희·문 등 5명의 출연자가 합류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한지붕 두소재로 우려먹기?

KBS-금연, SBS-소방 콘셉트 작품 선보여

KBS와 SBS가 각각 금연과 소방을 자사 프로그램의 주제로 삼고 있다. 콘셉트의 통일로 강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는 호평도 있지만 한 지붕 아래 우려먹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KBS2 '해피선데이-1박 2일'(사진)은 금연 여행을 주제로 출연진이 금단 현상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몰래 담배를 피운 사람을 밝혀내는 청문회까지 그려냈다. 그 동안 방송에서 담배는 금기시되는 용어였으나 '1박2일'은 금기를 파기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스토리있는 예능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KBS2 '인간의 조건'에서도 금연이 그려졌다.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은 담배를 포기해야만 했고, '1박2일'과 '이 프로그램에 모두 출연하는 개그맨 김준호는 뜻하지 않게 이중 금연 압박을 받아야 했다.

SBS는 '심장이 뛴다'와 새 주말극 '엔젤아이즈'에서 소방을 다룬다. '심장이 뛴다'는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출연진이 직접 구급대원 체험을 한다. 드라마 '엔젤아이즈'는 응급외과의사 박동주(딜런 박) 역의 이상윤과 119 구급대 응급구조사 윤수완 역의 구혜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스물로 출연 배우들이 직접 구급 교육을 받으며 실감 나는 연기를 예고했다.

23일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는 '엔젤아이즈' 팀이 출연해 런닝맨 팀과 소방 릴레이 경기를 치러 소방이 자사 예능·드라마 간판 소재로 비춰지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SBS의 한 관계자는 메트로신문에 "우연의 일치로 벌어진 현상이지만 방송의 공익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수목극 '골든크로스' 연기파 조연 대거 합류

KBS2 새 수목극 '골든 크로스'에 연기파 조연들이 대거 합류한다.

24일 드라마 제작사 측에 따르면 최근 김강우와 이시영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골든 크로스'에 이호재·김규철·조희봉·박원상·조덕현·기주봉(사진) 등이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

이호재는 전직 경제부총리이자 이레(이시영)의 외조부로 지적이고 깔끔한 모습 이면에 다른 속내를 철저히 감추고 있는 김재갑 역을 맡았다.



조희봉은 도윤(김강우)의 삼촌이자 사기전과 3범인 강주동으로 분해 평생 남의 돈으로 가늘고 길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꼼수의 제왕을 연기한다.

김규철은 서동하(정보석)의 절친이자 승리를 위해 불법도 마다치 않는 변호사 박희서 역으로, 박원상은 특전사 출신의 비례대표 조선의원 임경재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이상향적 정치인으로 분한다.

조덕현은 박희서(김규철)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그가 의뢰하는 불법적인 잡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해주는 강력계 형사 곽대수로, 기주봉은 고위급 공무원 정규직으로 분해 극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골든 크로스'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음모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열혈 검사의 탐욕 복수극을 그린 작품으로 다음달 9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4월 극장가 '액션 대첩'

'캡틴 아메리카' 내일 개봉 이어 '스파이더맨2' 등 줄줄이 개봉

4월 극장가는 기대작들의 액션 대전으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가 이달 26일 개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흥행작의 속편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와 충무로의 대세로 떠오른 류승룡이 주연을 맡은 '표적'이 다음달 26일과 30일 각각 개봉한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개봉한 액션 블록버스터 '논스톱'과 '300: 제국의 부활'이 국내에서 인기를 모은 가운데 4월 극장가에도 액션물이 흥행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봉한 '퍼스트 어벤져'의 속편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는 마블 히어로들이 총출동한 영화 '어벤져스'에서 활약했던 캡틴 아메리카(크리스 에번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어벤져스'의 뉴욕 전투 이후 실드의 일원으로 현대에 적응해 살아가던 캡틴 아메리카가 강력한 적인 윈터솔져(세바스찬 스탠)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담았다. 캡틴 아메리카는 이번 작품에서 새로워진 슈트는 물론 그의 대표 아이템인 방패를 활용한 액션으로 슈퍼 히어로다운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는 빌런 일렉트로(제이미 폭스)의 등장으로 전력 대란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빠진 도시를 구해야 하는 스파이더맨(앤드류 가필드)의 이야기를 다룬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주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이 도심을 가르는 시원한 활강 액션을 펼친다.

'표적'은 의문의 살인사건에 휘말린 남자 여훈(류승룡)과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와 위험한 동행을 하게 된 의사 태준(이진욱), 그리고 이들을 쫓는 두 형사가 펼치는 36시간 동안의 숨 막히는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카사노바부터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허균, '7번방의 선물'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까지 다양한 연기를 펼쳤던 류승룡이 이번에는 리얼한 액션을 선보이며 거칠고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한편 4월 극장가는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빈 주연의 '역린'(4월 30일), 정재영 주연의 '방황하는 칼날'(4월 10일) 등 또 다른 기대작들도 개봉할 예정이라 더욱 치열한 흥행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4 : 사라진 시대' 포스터 공개

더 강해진 캐릭터… 더 커진 스케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4 : 사라진 시대'(사진)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옵티머스 프라임과 더욱 강력해진 적 락다운의 등장을 보여주는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해 화제다.



'트랜스포머4 : 사라진 시대'는 시카고를 무대로 펼쳐졌던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마지막 결전 4년 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숲을 배경으로 서 있는 오토봇의 수장 옵티머스 프라임의 캐릭터 포스터는 거대한 검을 쥐고 있는 모습을 통해 위엄 있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편보다 업그레이드된 비주얼로 새로운 변신에 대한 기대감을 배가시킨다. 여기에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카피는 이전 시리즈를 뛰어넘는 스케일과 액션, 볼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거대 로봇 비행선을 뒤로 한 채 짙은 화염과 파괴된 기계들이 뒹구는 도로 한복판에 모습을 드러낸 락다운의 캐릭터 포스터는 위협적인 분위기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전 세계와 오토봇을 위기로 몰아넣는 적 역할로 이번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락다운은 앞서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 파워풀하고 놀라운 위력을 드러내 영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캐릭터 포스터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최초 공개된 후 단 하루 동안 1만7000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불러모았다. 6월 26일 개봉. /탁진현기자

'노아' 개봉 첫 주 100만 돌파

주말 박스오피스 1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노아'가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압도적인 흥행력을 과시했다.

24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일 개봉한 '노아'는 21일부터 사흘간 전국 951개 관에서 95만81명을 끌어모아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113만3424명을 기록했다.

'노아'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1억 3000만 달러(약 1393억8600만 원)라는 거대한 규모의 제작비를 들여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영화 '블랙스완'을 연출한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러셀 크로(사진)·제니퍼 코넬리·앤서니 홉킨스·엠마 왓슨·로건 레먼 등이 출연했다.



일부 기독교인이 영화가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포털 사이트 영화 평점 코너에서 0점을 주는 등 개봉 후 '평점 테러'를 받기도 했지만, 흥행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주말 박스오피스 2위부터 5위는 '우아한 거짓말' '논스톱' '300: 제국의 부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순으로 집계됐다. /탁진현기자

박효신 뮤지컬 '모차르트!' 주인공 발탁

가수 박효신(사진)이 임태경·박은태와 함께 2년 만에 새롭게 돌아올 뮤지컬 '모차르트!'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24일 "2010년 초연부터 합류한 임태경과 박은태, 지난해 뮤지컬 '엘리자벳'의 주역 박효신이 볼프강 모차르트 역으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장 주목할 만한 캐스팅은 신예 모차르트 박효신으로, 뛰어난 노래 실력과 표현력으로 원작자인 실베스터 르베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새로운 주역으로 나서게 됐다.



지난해 뮤지컬 '엘리자벳'을 통해 가수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뮤지컬 배우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박효신은 "다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돼 기쁘다. 관객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모차르트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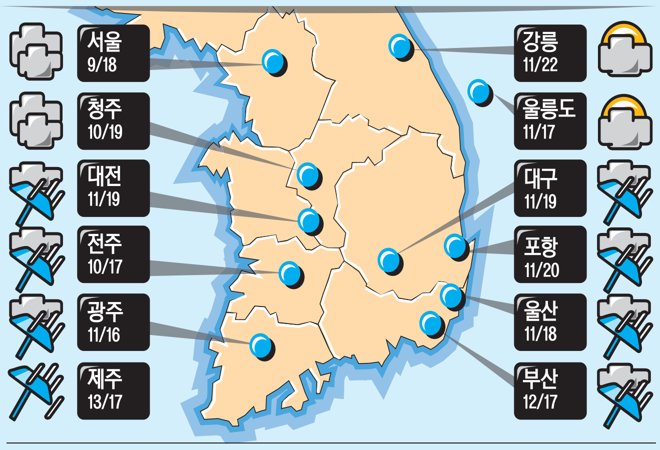
'모차르트!'는 유럽 뮤지컬의 명콤비인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터 르베이의 작품으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일생을 색다른 시선으로 풀어낸 이야기와 록·재즈·클래식 등 장르를 넘나드는 웅장한 음악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국내에는 김준수·박은태·전동석·장현승 등 걸출한 신예 뮤지컬 스타들을 배출했다.

6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될 2014년 버전은 새로운 연출 아드리안 오스몬드의 지휘 아래 대본·음악·무대 등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 공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인다. 문의: 02)6391-6333 /탁진현기자

날씨

3/25 火 일출시각 06:29 일몰시각 18:4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일교차가 커지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사이에 다래끼가 유행할 수 있습니다. 채소나 신선한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피로와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5	
	3				2			4
1		4			7	2	6	9
			9		5	8		
4	5						3	7
		9	7		3			
9	7	1	8			3		6
3			2				7	
	2			7				

1	9	5		7	3			
7			2					
						5		
	8	2	3			1		
4	3		6		1		8	5
		7			9	6	2	
		4						
					4			8
			9	6		2	4	7

스도쿠 정답

2	9	6	4	1	8	7	5	3
5	3	7	6	9	2	1	8	4
1	8	4	5	3	7	2	6	9
7	6	3	9	4	5	8	1	2
4	5	2	1	8	6	9	3	7
8	1	9	7	2	3	6	4	5
9	7	1	8	5	4	3	2	6
3	4	8	2	6	9	5	7	1
6	2	5	3	7	1	4	9	8

1	9	5	4	7	3	8	6	2
7	6	8	2	9	5	4	3	1
2	4	3	1	8	6	5	7	9
6	8	2	3	5	7	1	9	4
4	3	9	6	2	1	7	8	5
5	1	7	8	4	9	6	2	3
8	7	4	5	3	2	9	1	6
9	2	6	7	1	4	3	5	8
3	5	1	9	6	8	2	4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기술 말고 '깊이'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색동헌은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 위치한 갤러리 '2&i'의 건물 명칭이다. 색동을 우주의 상생과 소멸의 음양오행 이치를 가진, 한국인의 정서로 채워진 옷감으로 해석한 김옥현 교수의 사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다.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개관전을 열었는데 오방색의 다채로운 활용이 돋보이는 작품이 전시됐다. 작품은 현대적 시각에서 장인(Craftmanship)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엿보기에 충분했다.

이번주에는 디자이너 양지나의 '아시안 퓨전' 시리즈 두 번째 전시회가 예정됐다. 양지나는 조선시대 전복과 스란치마의 진화라는 주제로 한국적 이미지의 현대화를 시도했다. 전통적 디자인의 현대화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안이 기대된다. 양지나는 지난 2012년 괴불 모양과 조각보에서 보여지는 세모꼴 모티브를 이용한 프린트로 시대에 어울리는 전통의 소환을 보여 준 바 있다.

주목할 것은 김옥현 교수와 양지나가 모녀라는 점이다. "본인은 색동의 줄무늬 색상과 문양을 현대화해 세계화하고자 한다"는 김옥현 교수와 "나는 한복의 요소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감성과 어우러지는 실루엣을 패션 디자인에 접목하기를 좋아한다"는 양지나는 닮았으나 다른 듀엣이다. 갤러리 명칭이 2&i인 것 역시 여기서 비롯됐다. 전통과 현대, 엄마와 아기, 2명 작가의 협업이 함축된 것이다.

한국 디자인계는 브랜드계와 함께 2세 시대를 맞이했다. 전설이 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컬렉션장에 나타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다. 부모의 소개로 협회나 단체에 자리를 꿰어차는 걸 만류하는 것도 아니다. 부모가 만들어온 디자인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통찰력을 갖길 권할 뿐이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디자인 세계를 살아가는 기술 말고 깊이를 가르치면 어떨까.

자신이 가진 재능을 믿고 훈련을 거듭하면 세대가 이어지는 철학과 창의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디자이너로서 쉽고 편안한 길은 없다. 그러길 원한다면 쉬운 인생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지방 도시 이직 유리할까요 현 직장서 자격증 도전부터

한방너구리 남자 83년 7월 9일 양력 오후 6시45분

Q 레스토랑 지배인 경력 10년차(늦은 퇴근과 잦은 주중 휴무)로 연애 조건이 힘들어 다른 직업으로 바꿀 경우와 현재와 같은 업종에 더 좋은 조건(현재 근무지 서울, 이직할 근무지는 청주)으로 옮길 경우 어느 쪽이 더 유리 할까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선생님께 직접 사주를 보았습니다.

A 신의가 있고 신망이 두터우며 행동이 분명한데 반면 고집스로 책임의식이 강하고 타인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지만 가정에는 소홀하기 쉬운 것도 참고하십시오. 다시 설명하자면 간여지동(干如支動:천간과 지지가 동일한 오행)에 메마른 땅과 같아서 결혼은 2017년까지는 실패할 수 있고 부인이 병치레를 하게 될 수 있으니 현재까지 결혼 안 한 것을 다행으로 봅니다. 직장운은 이동수는 있으나 조건이 좋다 하여도 이동하여 본인이 편치 않게 됩니다. 3년 계획을 세워 자격증에 도전하여 이직을 할 뜻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과살(戈殺:창)로 인해 11월 골절을 입기 쉬우니 운전이나 걸어다닐 시에도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오랜독신… 부부 인연 있을까 8월까지 성심을 다해 만나도록

올씨미살자 남자 72년 6월 8일 양력
여자 79년 2월 2일 양력

Q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가 소개로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사이입니다. 저는 집안에 돌싱 형제가 있어서 부모님께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중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커플이 부부로서의 인연이 될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귀담아듣고 싶습니다.

A '백마의 상'으로 순수와 고결함의 상징인데 매일매일 빠르게 펼쳐지는 속진(俗塵:혼탁한 세상)에서는 원대한 이상이 통하지 않아 갈등이 있게 됩니다. 2014년~2016년 5월까지 유시무종(有始無終)하여 생각대로 결과를 보기가 어려울 듯하니 성심으로 대해 보십시오. 상대 여성은 내면이 견고하고 지금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운세는 상승합니다. 사주 공식으로 부부궁에 충살(충돌)이 있어 당사자들이 화합하면 원진살(원수 지듯 지냄)이 있어 주변 환경으로 마음고생을 겪을 수가 있어서 화합이 어렵기도 합니다. 인생사 궁합 따지다가 해법을 찾지 못하여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으니 일단 열린 마음으로 8월까지 지내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5일 (음 2월 2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급할수록 여유 가져라. **60년생** 마음 졸인 일은 무사히 넘어간다. **72년생** 외출할 땐 안전사고 조심할 것. **84년생** 사랑의 공식은 그리 간단치 않다.

소 **49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피곤하다. **61년생** 배우자와 말싸움은 피하라. **73년생**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실 얻는다. **85년생** 연인의 마음을 잘 파악할 것.

호랑이 **50년생** 구닥다리 사랑이 정겨운 법~. **62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하면 후회한다. **74년생**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은인자중할 것. **86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토끼 **51년생** 혼자 있을 틈이 필요하다. **63년생** 그대 자리 넘보는 사람 있으니 경계하라. **75년생** 돈이 되는 문서가 들어온다. **87년생** 오락가락하는 연인 때문에 답답~.

용 **52년생**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운 하루~. **64년생** 돈에 흔들리면 손해 부른다. **76년생**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니 조심할 것. **88년생** 남쪽으로 출행하면 이롭다.

뱀 **53년생** 집안의 애물단지가 웃게 한다. **65년생** 작은 양보하고 더 큰 것 얻어라. **77년생** 까다로운 사람은 피하는 게 좋다. **89년생**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라.

말 **42년생** 가짜 측근을 조심할 것. **54년생** 앞에서 끌지 말고 뒤에서 지지하는 게 좋다. **66년생** 결과보단 과정을 중요시하라. **78년생** 탐나는 일감이 생겨 즐겁다.

양 **43년생** 웃을 때도 시련이 찾아온다. **55년생** 아랫사람과 소통에 신경 써라. **67년생** 직장인은 주장이 강하면 마찰이 생긴다. **79년생** 기회가 왔을 때 발을 더 넓혀라.

원숭이 **44년생** 운기 별로니 외출 삼가라. **56년생** 가는 길에 문이 활짝 열렸다. **68년생** 즐거운 일은 동료와 함께 공유하라. **80년생** 자신을 알면 어처구니없는 실수 안 한다.

닭 **45년생** 자녀가 기쁜 소식 전한다. **57년생** 귀인은 기다려 주지 않으니 움직여라. **69년생** 생각도 못 한 고민이 생긴다. **8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 필요~.

개 **46년생** 무턱대고 남 의심하지 마라. **58년생** 능력을 과시하면 시기받는다. **70년생** 크게 얻으려면 일단 저질러라. **82년생** 눈치 적당히 보는 게 신상에 좋다.

돼지 **47년생** 남의 일로 종일 바쁘다. **59년생** 곤란한 부탁은 거절할 것. **71년생** 어려운 일을 맡지만 보람을 느낀다. **83년생** 변수가 있어도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9개 구단 감독들 "시즌 다크호스는 NC"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전력 평준화… 우승팀 글쎄"

프로야구 9개 감독들이 NC 다이노스를 2014시즌 다크호스 팀으로 지목했다.

프로야구 9개 구단 감독과 대표 선수들은 2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2014프로야구 미디어데이에서 올 시즌 가장 깜짝 놀랄 활약을 펼칠 다크호스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NC 다이노스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다크호스를 언급하지 않은 김응용 한화 이글스 감독을 제외하고 7개 구단 사령탑이 NC를 올 시즌 판도에 큰 영향을 끼칠 복병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승팀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복병에 대해서는 NC를 꼽는 데 다들 주저하지 않았다.

3년 연속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의 위업을 이룬 삼성 라이온즈의 류중일 감독과 한국시리즈 준우승팀 두산 베어스의 송일수 신임 감독, 염경엽 넥센 히어로즈 감독, 김시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NC를 다크호스로 지목했다.

NC 김경문 감독조차도 "NC가 다크호스 아닌가 힘줘 말하고 싶다"면서 "올해는 NC가 다크호스로서 한국 프로야구에 바람 한번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대부분의 사령탑들이 우승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심스러워했다.

류중일·김경문·선동열 감독 등은 "9개 구단 전력이 평준화돼서 우승팀을 꼽기 힘들다"며 "모든 팀이 다 우승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일수 두산 감독은 "강력한 우승 후보는 두산"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응용 한화 감독은 "작년에 KIA와 삼성이 우승 싸움을 하리라 예상했지만 KIA가 부상 선수가 많아 성적이 안 좋았다"면서 "올해는 아마 KIA가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4일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 행사에서 구본능(앞줄 왼쪽 다섯째)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각 구단 감독들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쉽다 프로 첫승

17세 '골프 신동' 리디아 고 파운더스컵 1타차 준우승



'골프 신동'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한국명 고보경·사진)가 프로 데뷔 이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목표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리디아 고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파이어 골프장에서 열린 JTBC 파운더스컵(총 상금 1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적어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이날만 9타를 줄인 베테랑 카리 웨브(호주·19언더파 269타)에 한 타 뒤져 준우승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리디아 고는 지난해 10월 프로 전향 선언 이후 이날 LPGA 투어 첫 우승 트로피를 노렸으나 무산됐다.

한편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는 이날 5언더파를 기록하며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크리스티 커(미국)와 함께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세계 랭킹 2위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은 이번 대회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29위에 그쳤다. 이로써 박인비는 세계 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양성운기자

LG 2연승 챔프전 '1승 앞'

창원 LG가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겨뒀다.

LG는 24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시즌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부산 KT에 71-61로 승리했다. LG는 5전3승제인 4강 플레이오프에서 1·2차전을 연속으로 따내면서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센터 김종규(16점·9리바운드), 데이본 제퍼슨(15점·9리바운드)이 더블더블급 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문태종은 이날 경기에서 득점한 11점 중 6점을 막판에 몰아 넣으며 팀의 해결사 노릇을 했다.

KT의 아이라 클라크는 23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팀 패배로 빛을 잃었다.

전창진 KT 감독은 1차전에서 판정에 항의하며 심판과 물리적으로 충돌해 한 경기 출전정지를 받았고 이날 경기장 밖에 주차한 선수단 버스에서 경기를 관전했다. 경기 전과 하프타임에 잠시 선수대기실을 찾아 전술을 전달했다.

시종 끌려가던 KT는 추격을 멈추지 않고 경기 막판까지 한 자리 점수 차를 유지했지만 센터 김종규·제퍼슨을 앞세운 LG의 높이를 이기지 못하고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KT 주포 조성민은 LG 기승호의 악착 같은 수비에 막혀 힘을 쓰지 못했다. 두 팀의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은 26일 오후 7시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농구 PO 전적 24일

LG	23	18	11	19	71
KT	20	14	12	15	61

아깝다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 동메달 결정전 러시아와 연장접전 끝 패배

2년 만의 세계선수권대회 '4강 신화'를 재현한 한국 여자 컬링이 사상 첫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그러나 컬링 세계선수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잠재 능력만큼은 큰 인정을 받고 있다.

스킵(주장) 김지선(27), 이슬비(26), 신미성(36), 김은지(24), 엄민지(23·이상 경기도청)로 구성된 대표팀은 24일 캐나다 세인트존에서 열린 2014 세계여자선수권대회 동메달 결정전에서 러시아와 연장 접전 끝에 6-7로 패배해 4위에 올랐다.



한국의 엄민지(왼쪽)와 이슬비가 팀 동료의 샷이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않자 안타까워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은 2012년 여자 대표팀이 최초로 4강에 올라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2년 만에 같은 성적을 낸 한국은 내심 한 계단 더 오른 역대 첫 메달을 기대했으나 마지막 패배로 아쉬움을 삼켰다. /양성운기자



골을 성공시킨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왼쪽)가 손을 번쩍 들어 기뻐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는 고개를 숙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해트트릭' 메시 '1골' 호날두 또 울려

바르샤 마드리드에 재역전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가 리오넬 메시의 해트트릭으로 시즌 2번째 '엘 클라시코'(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더비 경기)에서 승리했다.

바르셀로나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3~2014 프리메라리가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4-3으로 이겼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리그 선두를 달려온 레알 마드리드의 순위를 한 계단 끌어내리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만들었다.

양팀은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라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보유한 팀답게 경기 초반부터 난타전을 펼쳤다.

전반 7분 바르셀로나의 안드레아스 이니에스타가 메시의 도움을 받아 선제 득점하자, 레알 마드리드는 카림 벤제마가 두 차례나 앙헬 디 마리아의 왼쪽 크로스를 문전에서 마무리해 17분 만에 경기를 역전시켰다.

그러나 메시가 전반 42분 왼발로 레알 마드리드 골망을 갈라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양팀은 이후 메시와 호날두의 페널티킥으로 한 골씩을 더 주고받았다. 메시는 후반 39분 이니에스타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다시 성공시켜 4-3 짜릿한 재역전극으로 마무리 지었다.

두 팀의 시즌 마지막 엘 클라시코인 코파델레이(국왕컵) 결승전은 다음달 20일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열린다.

/전효진기자 jeonhj89@



39
있는 것들은
모르는
팔자극복
로맨스!
tvN 월화드라마
마녀의 연애
팔자극복 로맨스
4월 14일 tvN 첫 방송 | 매주 월화 밤11시
엄정화 | 박서준 | 한재석 | 정연주 | 양희경 | 주진모 | 이세창 | 라미란 | 강성진 | 윤현민
연출 이정효 ◆ 극본 반기리 | 이선정 ◆ 기획 tvN ◆ 제작 그룹에이트